

COVER STORY

Sound of Busan :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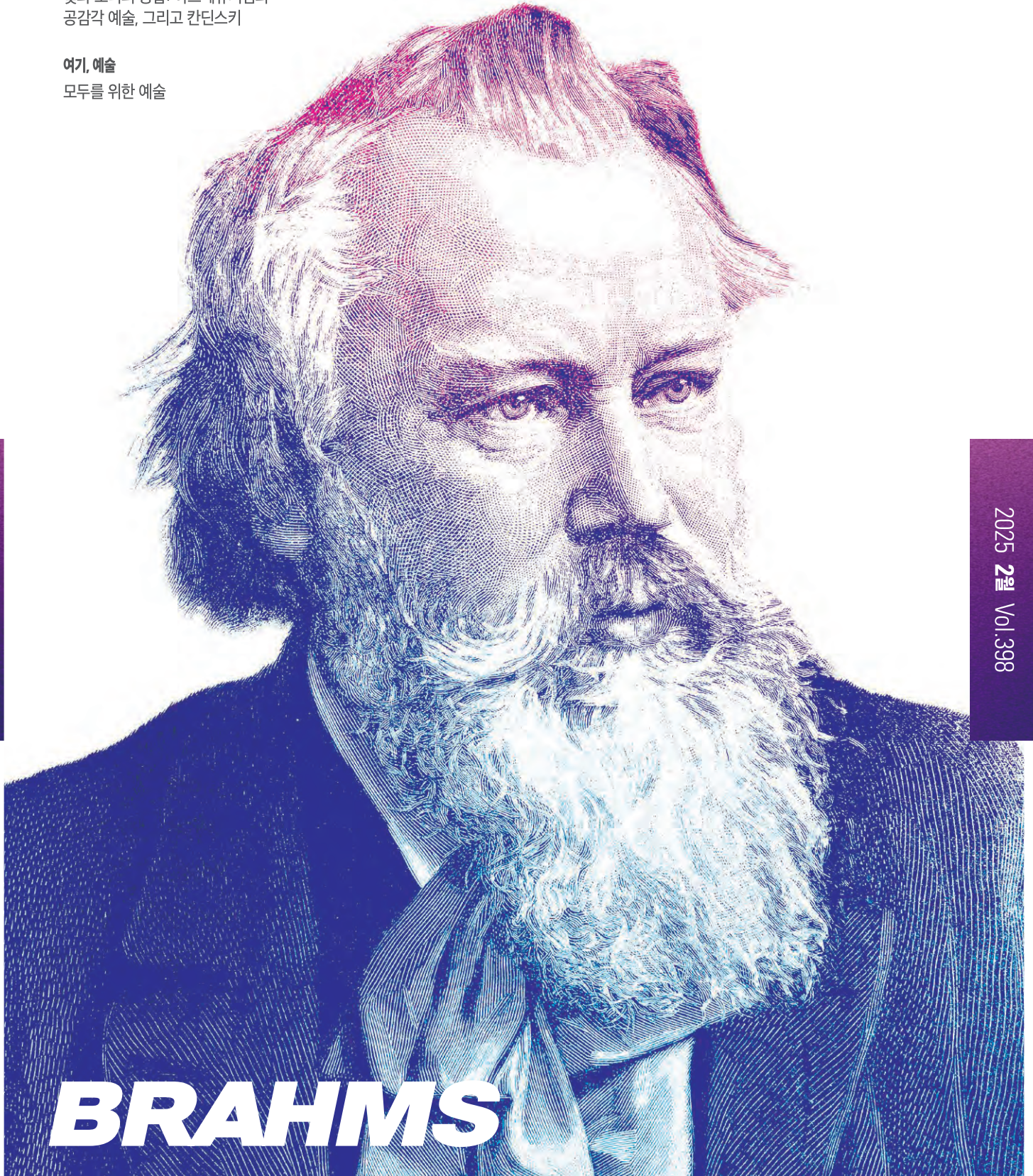
COLUMN

빛과 소리의 융합: 아르떼뮤지엄과
공감각 예술, 그리고 칸딘스키

여기, 예술

모두를 위한 예술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RAHMS

2025 2월 Vol.398

LG아트센터 제작
LG Arts Center Production

사이먼 스톤 연출
'벚꽃동산'

'The Cherry Orchard'
by Simon Stone

벚꽃동산



전도연 박혜수 손상규 최희서 이지혜 남윤호 유병훈 박유림 이세준 이주원

©LG아트센터, 이승희



25. 3. 13. - 15.
목, 금 19:30 토 1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VIP 11만원 R 8만원 S 6만원 A 4만원
13세 이상 관람가



부산시립합창단 제195회 정기연주회
BUSAN METROPOLITAN CHORUS

Edward Benjamin Britten

Spring Symphony

벤자민 브리튼 봄의 교향곡



지휘 **이기선**

소프라노 **최정원**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김효중**

베이스 **김대영**

Program

Anton Bruckner 『Te Deum』 / Benjamin Britten 『Spring Symphony』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2025. 3. 13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첼리스트 홍진호

진호의 책방..별

음악을 읽다

이야기와 선율이 흐르는 진호의 책방으로 초대합니다.

사랑에 빠졌던 그대의 감정이 기억나시나요?

알폰스도데 [별]

헤르만 헤세 [수레바퀴 아래서]

홍진호, 별을 보게 되는 순간을 사랑합니다

Astor Piazzolla, Adios Nonino

Carlos Eleta Almarán, Historia de un amor

Carlos Gardel, El día que me quieras

Astor Piazzolla, Viaje de Bodas 외

첼로 홍진호, 반도네온 고상지, 피아노 최문석

2025. 2.14. (금) 19: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테너 _ 양승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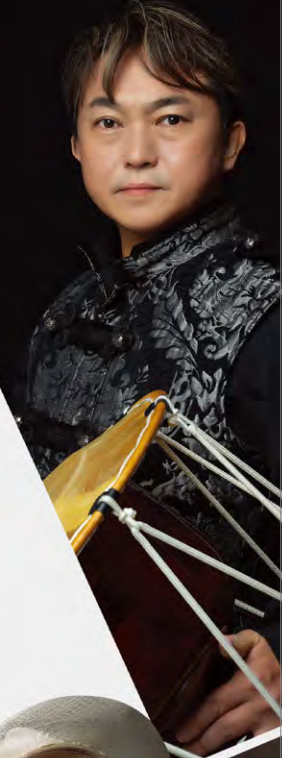


테너 _ 김지호



장구 _ 민영치

테너 _ 김준연



2025 해운대문화회관 신년음악회

2025. 2. 25.(화) 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지휘 _ 김봉미



뮤지컬 배우 _ 최정원



부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주최 해운대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주관 부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입장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인터넷예매 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전화예매 해운대문화회관 051) 749-7651

할인 누리회원(40%), 초·중·고·예술인패스(30%) 단체 20명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50%) ※ 누리회원, 학생증, 장애인카드 확인 후 매표소에서 티켓 발부



해운대문화회관 예매처

이 무지치 베네치아니 내한공연

IL MUSICICI VENEZIANI

모차르트, 로시니, 베르디, 푸치니 등 불멸의 명곡들을 선사하며,
오페라와 바로크 음악을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무대예술!

18세기 베네치아 귀족 연회장의 화려한 의상과 가발, 악기로 재현하는
바로크 시대 최고의 레퍼토리



2025. 2.14(금) 오후 7시30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주최 · 주관



국제신문 U\MPRODUCTION

공연문의 051)868-7019

티켓구입



interpark 인터파크 tickets.interpar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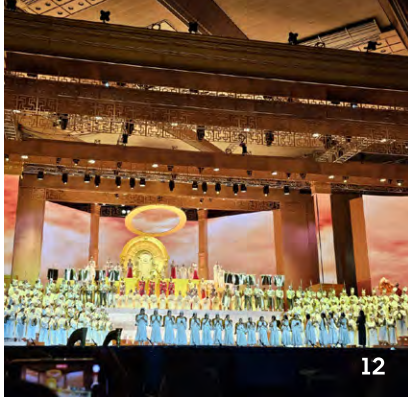
티켓

VIP석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6만원 / A석 4만원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5. 2월호 Vol.398



Column	8	빛과 소리의 융합: 아르데뮤지엄과 공감각 예술, 그리고 칸딘스키
여기, 예술	10	모두를 위한 예술
Cultural Issue	12	두 초대형 이벤트 오페라 <투란도트>의 씩씩한 결말
무대 뒤 사람들	14	극작가 차승호
현대미술산책	16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Cover Story	22	Sound of Busan :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Preview	28	
Review	32	
Program Guide	34	
New Book	42	



빛과 소리의 융합: 아르떼뮤지엄과 공감각 예술, 그리고 칸딘스키

• 김성필 국립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교수



지난 주말 부산 영도를 산책하던 중, 우연히 아르떼뮤지엄을 방문하게 되었다. 오래된 선박수리공장을 리모델링한 독특한 외관부터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 안에 들어서자마자 빛과 소리, 그리고 향기가 어우러진 세계가 펼쳐졌다. 각 전시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몸으로 느끼고 감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졌는데, 특히 작품 속에서 공감각적 자극을 강렬히 느낄 수 있었다. 전시를 둘러보는 동안 문득 바실리 칸딘스키의 작품과 사상이 떠올랐다. 마치 그의 공감각적 예술이 이곳에서 현대적 방식으로 재탄생한 듯했다. 2024년 7월 부산 영도에 문을 연 아르떼뮤지엄은 기존의

선박수리공장을 재탄생시킨 독특한 공간이다. '영원한 자연 (Eternal Nature)'이라는 주제로 16개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보이며, 디지털 기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결합한 공간으로 관람객들을 초대한다. 대표적인 전시로는 무한히 확장되는 디지털 폭포인 <Waterfall Infinite>와 우주적 순환을 표현한 <Circle>이 있다. 이 작품들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관람객에게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선 영적이고 내면적인 감동을 선사한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의 공감각적 예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칸딘스키가 추구했던 예술적 비전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러시아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1866-1944)는 색채와 소리의 연결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 선구적 화가다. 그는 음악과 회화의 경계를 허물며, 감정과 영혼에 직접 호소하는 작품을 창작하고자 했다. 칸딘스키의 공감각적 경험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현대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칸딘스키는 '점, 선, 면' 이론을 통해 예술적 구성의 기본 요소를 체계화하며, 이를 음악적 리듬과 조화에 비유했다. 그의 대표작 <구성 VII>은 다성적 구조와 색채의 조화를 통해 음악적 영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이는 아르떼뮤지엄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가 빛과 소리로 새로운 예술적 차원을 제시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공감각(共感覺, synesthesia)은 감각 간의 연결성을 통해 예술적 경험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칸딘스키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에서도 중요한 주제다. 아르떼뮤지엄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감각적 예술의 현대적 구현을 이룩하고 있다. 예를 들어, <Waterfall Infinite>는 시각적으로는 끝없이 흐르는 폭포를, 청각적으로는 물소리와 조화로운 음악을 제공하며 관람객의 감각을 통합한다. 이러한 경험은 칸딘스키가 언급했던 '내적 진동'을 일으키며, 관람객에게 단순한 감상 이상의 몰입과 내면적 성찰을 제공한다.

아르떼뮤지엄은 부산이 공감각적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현대적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이 공간은 부산의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며,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부산의 창의적 산업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보여준다. 아르떼뮤지엄과 같은 공간은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



칸딘스키 <구성 VII>



<Circle>

어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감각적, 정서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칸딘스키가 꿈꿨던 예술과 감정의 융합은 부산에서 현대적 해석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이로써 예술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과 연결되며,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아르떼뮤지엄은 빛과 소리, 그리고 기술을 통해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하며, 현대 공감각적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 공간은 칸딘스키가 제안한 예술적 비전과 연결되며, 예술이 어떻게 인간의 감각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부산이 이러한 혁신적 예술 공간을 통해 세계적 문화 도시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공간이 제시하는 경험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며 예술과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게 한다.

아르떼뮤지엄은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예술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예술은 단순히 미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각을 일깨우고 감정을 공유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을 가진다. 칸딘스키가 탐구했던 '내적 진동'의 가능성은 이곳에서 더욱 확장되어, 부산을 새로운 예술적 발견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모두를 위한 예술

박소윤

(재)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유엔 해비타트는 도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유엔 인간정주회의로 1976년부터 20년 주기로 열고 있다. 유엔 해비타트I은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엔 해비타트II는 1996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렸다. 유엔 해비타트III은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새로운 도시의제」를 발표했다. 놀랍게도 21세기가 되어서야 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천명하게 된 것이다.

유엔 해비타트III에서 도시가 그곳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도시를 누리는 것이 권리임을 선포한 것은 도시의 주체가 바뀌는 사건이었다. 이것으로 도시에 사는 다수자, 원주민뿐 아니라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경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도시의 주체가 되었다.¹

예술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되는 데도 긴 시간이 걸렸다.

정치지도자와 종교지도자들이 거행하던 예술 제전은 정치적, 종교적 권위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했으므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멀고도 높은 곳에 있던 것이었다. 또한 왕, 귀족과 부호들이 가졌던 예술적 취향과 그들이 소유한 값비싼 컬렉션들은 일반 사람들과의 문화적 구별 짓기를 확실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예술작품 원본의 아우라가 그들이 속한 계급적 아우라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즐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민간에서도 축제, 놀이, 공예, 민요와 같은 다채로운 예술 세계를 영위하고 있었다. 1950년대 프랑스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는 과거



영화 <기적의 오케스트라 - 엘 시스테마>

의 지배계급들이 향유하던, 중앙의 고급예술을 지역과 사회 저변으로 보급하는 문화의 민주화(démocratisation de la culture) 정책을 펼쳤다. 문화를 고급과 저급으로 가르는 것은 문화를 넘어 사회적인 계급 분화의 기술을 전승하는 것이기에 인기가 없었다.

1980년대 프랑스 문화부 장관 자크 랑(Jack Lang)은 문화민주주의(Démocratie culturelle) 정책을 표방하였는데, 이는 지역 발전, 공동체의 주체적 예술 참여라는 점에서 중앙문화와 지역문화, 고급문화와 하위문화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등장시켰다. 오늘날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공예술, 커뮤니티 아트,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예술, 아마추어 예술, 거리예술 등이 그것이다.

이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러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문화기본법, 2013년 제정) 계급적 층위와 이분법이 사라진 문화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시대가 마침내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20년 제정된 부산 시민문화현장은 모든 시민을 넘어 외국인과 이주민도 부산지역에서 일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문화기본법보다 문화적 주체를 더욱 넓게 확장시킨 점에서 부산 시민문화현장은 대담한 포용성을 보여준다. 또한 부산 시민문화현장에서는 개방과 포용의 정신이 살아있는 부산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질적인 문화가 창조적으로 소통하는 문화의 교류 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부산 시민문화현장이 ‘모두를 위한 도시’를 표방하는 유엔 해비타트Ⅲ의 비전과 닿아있다고 하겠다.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고 해서 예술이 지향하고 있는 미적 세계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고급이니, 저급이니 하는 계급적 층위를 걷어낸 것일 뿐, 예술은 고유한 미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임은 분명하다. 다만 모두가 그 영역에 참여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인류가 문화예술사에서 이룬 의미 있는 성과이다.

모두를 위한 예술은 모두를 위한 도시 곳곳에 깃든다.

공공 문화시설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이나 시각예술 작품

은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준다. 또한 찾아가는 예술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성큼 다가가기도 한다. 부산시립예술단은 <2025년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희망하는 기관을 공모하여 지역 곳곳에서 맞춤형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부산문화재단도 <생활문화 클라쓰>, <사우나>, <기타(guitar) 등등>, 기후 위기 탄소중립 비치코밍 사업과 같은 일상 속 생활문화 사업, 예술치유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과 포용예술공간 <두구> 운영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도시의 모두가 예술을 창작하거나 향유할 준비다.

국정 문제, 지역소멸 문제 등 힘든 시기에도, 베네수엘라의 음악예술교육 엘 시스템아(El Sistema)나 콜롬비아의 무용 예술교육 몸의 학교(El Colegio Del Cuerpo)가 사람을 품고, 예술이라는 또 다른 세계를 열었듯이, 우리 도시의 예술도 세상의 낮은 곳, 고단하고 외로운 자리를 찾아갈 모양이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도시’ 부산의 ‘모두를 위한 예술’의 태도이다.

내 노래의 영역은 인간의

공동 책, 열린 빵이다.

농부들의 공동체는

어떤 때 그 불을 모아

대지의 배에 다시 한번

그 불꽃을, 그 잎을 심으리라.

파블로 네루다 『모두의 노래』 중

「여기서 마친다(1949)」에서.²

1 박소윤, 「도시와 도시거주자의 예술, 일상」, 『예술하는 일상』, 호밀밭, 2024, 17쪽.

2 파블로 네루다, 고희선 역, 『모두의 노래』, 문학과 지성사, 2016.

두 초대형 이벤트 오페라 <투란도트>의 씁쓸한 결말

•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초대형 오페라 <투란도트> 2편이 푸치니 서거 100주년이었던 2024년 하반기에 잇따라 무대에 올랐다. 솔오페라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아레나 디 베로나 페스티벌 <투란도트>와 박현준 한국오페라협회장이 꾸린 (주)투란도트문화산업전문회사의 <어게인 2024 투란도트>다. 80억 원과 200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는 두 <투란도트>는 티켓 최고가가 각각 55만 원과 100만 원으로 책정되며 공연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주최 측의 미숙한 운영으로 관객의 환불 요구 등 논란에 휩싸였다.

먼저 10월 12일~19일 1만석 규모의 서울 송파구 KSPO돐(옛 올림픽체조경기장)의 <투란도트>는 지난 여름 베로나에서 사용된 무대세트와 의상 등이 55개의 컨테이너로 국내에 공수됐다. 막을 올렸을 때 오페라계 거장이었던 고(故) 프랑코 제피렐리 연출 프로덕션의 완성도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니엘 오렌의 지휘 아래 투란도트 역의 올라 마슬로바, 칼라프 역의 마틴 벨레, 류 역의 마리안젤라 시실리아 등 출연진의 역량도 수준급이었다.

하지만 전체 8회 가운데 개막 첫 주말에 열린 두 차례의 공연에서 외부 소음이 심각하게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KSPO돐 외에 올림픽공원에서 3건의 공연이 열리고 있었

던 것이다. 특히 88잔디마당에서 일렉트로닉 록 밴드 등이 출연하는 야외 콘서트의 노래와 환성이 고스란히 KSPO돐 안까지 전달됐다. 여기에 일부 관객이 좌석을 좋은 자리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공연 내내 분위기가 산만했다. 환불 요구 등 불만이 쏟아지자 주최 측은 12일~13일 관객에게 다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어 12월 22일~31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D홀에서 열린 <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2003년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장이머우 연출 <투란도트>를 기획했던 박현준 예술총감독이 주도한 것이다. 길이 45m와 높이 17m의 무대, 6,800석 규모의 객석 등 실내 오페라 공연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를 내세웠다.

하지만 <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공연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개막을 앞두고 연출가 다비데 리베르모어가 박 총감독으로부터 장이머우 연출 버전을 강요받았다며 자신의 이름을 빼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총감독이 리베르모어의 연출팀이 개런티를 과하게 요구했다고 반박하자, 리베르모어의 연출팀은 프로덕션 측이 상의도 없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의상 수십벌을 구매했다고 맞받아치는 등 갈등이 노출됐다.

여기에 티켓 판매가 저조해 객석을 4,000석으로 줄인 것에 대해 주최 측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탓에 로비는 혼란 그 자체였다. 관객들은 현장에 와서 주최 측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좌석을 받거나 ‘아무 데나 앉으라’는 안내를 받고 강하게 항의했다. 고성이가 오가는 가운데 공연은 23분 늦게 시작했고, 일부 관객은 환불을 약속받은 뒤 발길을 돌렸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어게인 2024 투란도트>의 문제는 계속됐다. 원래 3단으로 놓을 예정이던 좌석이 단차 없이 깔리다보니 객석에서 무대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무대 전면 기둥들까지 시야를 방해했으며, 무대 양옆의 스크린은 너무 작아서 성악가 한두 명만 담을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박총감독이 연출한 무대는 동서양의 요소가 애매하게 뒤섞이는 등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막 첫날 공연을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성악가들 덕분이었다. 투란도트 역의 소프라노 아스믹 그리고리안, 류 역의 소프라노 줄리아나 그리고리안, 칼라프 역의 테너 유시프 에이바조프는 압도적인 가창력과 표현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이후에도 사전 공지 없이 일부 성악가가 교체되는가 하면 지휘자 중 한 명인 파올로 카리아니까지 주최 측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중도 하차했다. 결국 티켓 판매 부진으로 31일 예정됐던 마지막 공연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막을 내렸지만 관람 피해를 봤다는 관객들의 환불 및 보상 요구와 법적 대응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프로덕션과 중도에 결별한 연출가와 지휘자 그리고 마지막 공연을 취소한 데 따른 출연진의 개런티 정산도 복잡해 보인다.

국내에서 초대형 이벤트 오페라는 2003년 5월, 65억 원의 제작비를 들였다는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투란도트>에서 시작됐다. 당시 4회 공연에 11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산 과정에서 주최 측과 투자자 사이에 송사가 불거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란도트>가 이익을 남기자 2003년 9월 잠실종합운동장의 <아이다>, 2013년 12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의 <라보엠>, 2004년 5월 잠실주경기장의 <카르멘> 등 수십억의 제작비를 들인 경기장 오페라가 잇따라 등장했다. 이들 작품은 수익을 남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돈 문제로 소송이 벌



1 어게인 2024 투란도트(필자 제공)
2 투란도트(솔오페라단 제공)

어지기도 했다.

한동안 뜸했던 초대형 이벤트 오페라는 2010년 다시 등장했다.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투란도트>가 서울 상암 및 제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티켓 예매 저조로 취소됐다. 또 2012년 8월 연세대 노천극장의 <라보엠>은 태풍과 티켓 판매 부진으로 4회 공연 중 2회만 이뤄졌다.

이들 초대형 오페라는 하나같이 ‘오페라 대중화’를 내걸었지만 실상은 ‘오페라 상업주의’, 심하게는 ‘오페라 한탕주의’다. 주최측이 이야기하는 제작비를 액면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이들 공연은 명품 콘셉트를 내세워 투자받은 뒤 협찬과 기업 마케팅으로 통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티켓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 유럽의 주요 오페라 축제와 비교해도 심하게 비싼 티켓 가격으로 ‘오페라 대중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벤트 오페라에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이 2014년 성남문화재단이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한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다. 성남문화재단은 시민들이 공원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파크 콘서트’의 일환으로 오페라를 여러 차례 선보였다. 그리고 마포문화재단이 2017년~2019년 ‘마포 M클래식축제’ 프로그램으로 상암월드컵공원 수변무대에서 오페라를 무료로 공연했고, 서울문화재단은 2022년부터 한강노들섬 야외무대에서 매년 가을 무료로 오페라를 선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을 오페라와 한층 가깝게 만든 이런 지자체 이벤트 오페라야말로 ‘오페라 대중화’에 어울리는 것 아닐까.

어제도 썼고,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는 극작가 차승호

• 박나무 자유기고가



하얀 바탕 위에 커서라고 불리는 세로선만 깜박깜박 박거리고 있다. 아무 것도 없다. 조물주가 온통 깜깜한 흑암 속에서 빛을 불러와 밤과 낮을 만들고, 물을 갈라 하늘과 바다라 칭한 건 오히려 쉽지 않았을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니 글자가 되고 글자를 모아보니 문장이 되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니 참 좋았더라. 이렇게 글이 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의 많은 작가들이 하얀 바탕을 마주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으리라. 그러나 아무 것도 없는 하얀 바탕이 결국은 모든 예술의 시작점이며, 쓰고 지우고 그리고 망치는 가운데 새로운 작품과 그 세상들이 생멸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영역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연극과 오페라, 뮤지컬 등 우리가 자주 다루는 공연예술에서는 극작가가 대본을 써내지 않으면 일이 시작될 수가 없다. 대체로 완성된 대본을 두고 제작을 결정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작을 결정하고 대본을 의뢰하기도 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싶겠지만, 닭이 없으면 달걀도 없고 달걀이 없으면 닭도 없다. 아무튼 모든 드라마에는 대본이 있어야 하며, 그 대본을 쓰는 사람을 극작가라고 부른다. 무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책상머리에 앉았겠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무대 구성과 배우의 대사 혹은 노래, 그리고 몸짓과 표정만이 들어앉았을 사람이 극작가이겠다.

부산시립극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 프로젝트’ 재작년에는 김문홍 극작가의 <안개주 의보> <사자의 편지> <목련꽃 그늘 아래서>를 공연했고, 지난해에는 베르톨트 브레히트 극작가의 <코카서스의 백묵원> <사천의 선인>을 선보였다. 올해는 좀 서둘러 봄을 놓치지 않은 3월말 4월초를 기해 신진작가의 작품을 공연할 예정이다.



기성 극작가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극작가의 작품을 공연한데 이어, 부산의 신진 작가를 주제로 삼은 것인데, 차승호 극작가의 <오롯이 빛나는>과 김민우 극작가의 <초월자>를 선정했다. 부산시립극단이 일컫는 ‘스타’는 극작가인 셈인데, 다음 프로젝트의 스타는 누가 될지 벌써 궁금해진다. 오늘은 이들 중 차승호 극작가를 만나보기로 한다.

차승호 극작가는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로 화제를 모았던 이로, <밤과 낮, 경계의 시간들> <대항 이중섭> <바라던, 바다>를 쓰고 또 연출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부터 연극판에 자신해서 뛰어들었고, 극단 미추의 열혈 단원이었다. 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으며, 지금은 동국대에서 콘텐츠시나리오를 공부하고 있기도 하다. 연극판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재다능하다. 연기를 하다가 대본을 쓰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조명을 잡고 있다가 또 그 중의 누군가는 연출을 하고 있기도 하다. 연극이라는 장르를 구성하기 위해선 여러 역할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하니 누군가는 맡아야 했고, 그러다보면 자신에게 특화된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리라. 차승호 극작가는 극작과 연출에 특화된 사람이었다.

“여러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은 이 세계에서 그나마 ‘쓰는 사람’은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지니고 있다고 봐요. 연극 공연을 위해서 썼지만, 이것이 뮤지컬이 될 수도 있고, TV드라마 혹은 영화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시장은 세계로 열려있습니다. 이번에 공연할 <오롯이 빛나는>은 뮤지컬로 써두었던 건데, 이번 스타프로젝트를 위해 각색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상업적인 흥행을 지향하는 최일선에 서있고, 또 그것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썼고,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는 것밖에 다른 도리는 없는 것이죠. 잘 쓰기 위해선 공부 필요하고, 대학원에서 여러 쓰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여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극작가는 극의 대본을 쓰고, 연출가는 극을 만든다. 이 둘

이 같은 사람이었을 때 좋은 점이 있고, 다른 사람이었을 때 새롭게 발견하는 지점도 있을 것이다. 극의 전개를 처음부터 그린 사람이 연출을 맡았을 때는 작가가 구현하고자 한 색깔이 그대로 드러날테고, 영판 판 사람이 연출하면 아예 새로운 그림이 탄생하고 그것이 외려 좋을 수도 있겠고, 작가의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작가가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 겸직이겠다. 우리는 극작과 연출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를 보는 것도 하나의 ‘감상 포인트’로 삼으면 될 일이라. 이번에 공연할 <오롯이 빛나는>은 차승호 극작가가 연출도 맡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쪽 끌고 갈 것이다. 부산시립극단 배우들과 어떤 호흡과 궁합을 보여줄지 자못 기대가 크다.

“어떤 이야기를 쓰고 또 공연을 할 때 그것이 대중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어야 합니다. 어떤 컴플레인인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다치게 한 일이겠죠. 누군가에게는 소비되는 이야기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배척의 영역이 될 수도 있어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일상에서 아이디어와 소재를 얻고, 도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써서 마음에 가 닿게 하는 일이 결국 나의 숙명이라, 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충격과 공포와 놀람의 도가니인 요즘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로 뉴스와 일상을 넘어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쓰리오마는... 차승호 극작가가 이 곳 부산에서 부산과 부산사람, 부산의 이야기를 양분 삼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는 극을 써주기를 바라본다.

한 작품이 기획되고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여 스텝들의 역할을 알아보고 무대 뒤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무대 뒤 사람들>이 올 한해 새롭게 독자들과 만납니다. 1월호 제작자 심문섭에 이어 2월호에는 부산시립극단 스타 프로젝트-창작초연(3월 28일~29일)으로 관객과 만나는 극작가 차승호를 통해 극작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끍니다.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박승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현대 추상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명의 러시아인은 칸딘스키와 말레비치이다. 칸딘스키는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유명해졌지만, 키이우 출신의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 1878~1935)는 대중적으로 생소하다. 유럽에서 활동했던 칸딘스키와 달리 말레비치는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다. 2월과 10월 두 차례의 러시아 혁명(1917) 이후 미국-소련 냉전으로 러시아는 봉쇄되었다. 1960년이 지나야 미국 내에서 러시아 현대미술이 알려지면서 말레비치라는 이름도 국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레비치의 예술은 일찍이 20세기 초 유럽의 추상미술에 영향을 끼치며 현대 건축과 디자인에도 스며들었다.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검정 자켓, 반듯한 육면체들로 이루어진 새하얀 고급 펜션은 어김없이 말레비치를 떠올리게 한다.

19세기 이후 러시아에서도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부유한 상인들이 출현했고, 이들은 세잔, 마티스, 피카소 등 당대 유럽 미술품을 구입하여 러시아에 소개했다. 당시의 전위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말레비치 또한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입체주의 등 유럽 미술을 차근차근 소화했고 1910년에 이르자, 새로운 예술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었다. 물론 예술가들뿐 아니라 20세기 초 러시아는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 격렬하게 반응했다. 1905년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황제를 상대로 시위를 벌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총과 칼이었고(피의 일요일), 이후 전국적 파업으로 노



카지미르 말레비치, <소와 바이올린>, 1913, 나무에 유화, 48.8×25.8cm, 러시아 미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동자 평의회(소비에트)가 러시아 전역에 세워졌다. 이후 제1차 대전(1914~1918)에서 드러난 황제군(軍)의 허약함과 경제적 어려움은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는 계기를 제공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예술가들도 변화를 꾀했는데 그 중심에 말레비치가 있었다.

말레비치는 피카소의 입체주의 콜라주를 연구하면서 미술 양식과 사물의 크기에 대한 실험을 강행했다. <소와 바이올린>(1913)에서 색면으로 분할된 배경 위 바이올린과 그 가운데 작게 표현된 소가 있다. 어울리지 않는 두 사물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크기로 표현되어 있어 엉뚱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진다. 이처럼 사물을 현실적 맥락에서 떼어내어 새롭게 재배치하는 기법은 이후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의 주요 전략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화면에는 여전히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바이올린’과 ‘소’라는 대상이 보이고 미술은 그것을 재현하고 있었다. 미술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싶었던 말레비치는 이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생각했던 미술은 불현듯 찾아왔다.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합작한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1913)에서 말레비치는 의상과 무대 디자인을 맡았다. 태양을 상자에 가두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는 줄거리의 오페라는 의미도, 음악도 모든 게 예상대로 난해했다. 말레비치는 무대 배경으로 흰색 천에 검은 사각형을 그려진 그림을 걸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림의 위력을 깨닫게 된 말레비치는 함께 오페라에 참여했던 작곡가 미하일 마투신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에 썼다. “회화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될 거야. 무심결에 만든 것이 엄청난 결실을 낳고 있어.” 그의 예상대로 사각형 그림은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온전히 순수한 의미의 추상이 되는 ‘엄청난 결실’을 낳았다.

온전한 의미의 순수 추상이란 무엇일까? 칸딘스키는 사물의 단순화를 향한 단계적 발전을 통해 완전한 추상에 이르렀으며, 인간의 정신을 형태와 색채의 조성을 통해 표현하려 했다. 반면 말레비치는 추상으로서의 직접적 도약을 이루었는데, 검정과 흰 물감, 캔버스에 이루어진 말레비치의 추상은 사물의 단순화니,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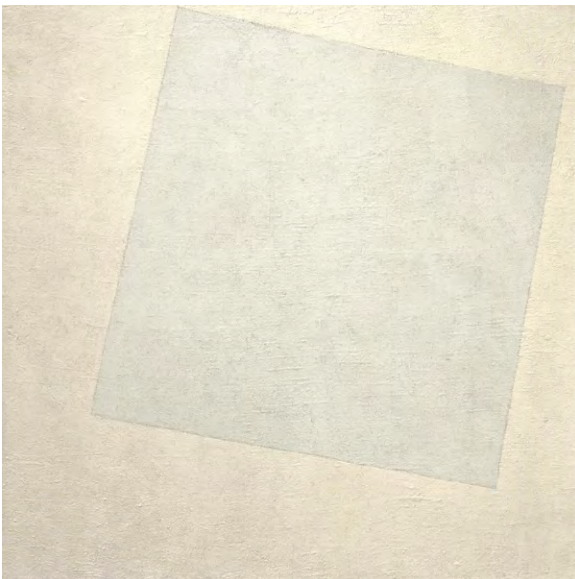
카지미르 말레비치, <검은 사각형>, 1915, 캔버스에 유화, 79.5x79.5cm
트레치야코프 갤러리, 모스크바

간 정신이니 하는 것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가리킬 뿐이다. 그는 전무후무한 이 순수 추상에 ‘절대주의’(Suprematism, 쉬프레마티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의 라틴어 어원 supermus(수프레무스)는 ‘최고의 상태’, ‘가장 기초적이면서 첫 번째의 것’을 뜻한다.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는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사각형을 늘리면 막대 모양이, 교차하면 십자가 형태가, 돌리면 원이 되기 때문이다.

<검은 사각형>(1915)은 액자가 없는 대신 흰색 배경이 마치 그림의 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가운데 커다란 검은색 사각형은 그 어떠한 것도 지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인상주의부터 대상의 형태가 무너지더니 이제 대상 자체가 사라져 회화가 절대 영도(absolute zero)의 상태가 되었다. 그렇다면 흰 바탕에 검은 물감으로 칠해진 사각형은 대체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관람자가 여기서 읽어내야 할 명확한 의미는 없다. 그러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흰 배경 위로 검은 사각형이 떠오르면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듯, 반대로 흰 배경 안으로 무한한 깊이의 사각형



카지미르 말레비치, <절대주의 구성>, 1915, 캔버스에 유화, 88.5×71cm, 개인 소장



카지미르 말레비치, <절대주의 구성: 흰색 위의 흰색>, 1918, 캔버스에 유화, 79.4×79.4cm,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흠이 파인 듯한 이중의 긴장감을 생성한다. 검은 사각형은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무(無)를 보여주지만, 반대로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저 검은 사각형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하다. 있음과 없음, 하나(유한)와 모든 것(무한). 검은 사각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검은 사각형>은 미술의 종결점이면서 시작점이 된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 과연 절대주의다.

검은 사각형을 활용하여 다수의 작품을 제작한 말레비치는 더욱 다채롭고 역동적인 단계로 나아갔다. <절대주의 구성>(1915)은 흰색 배경 위로 다양한 형태와 색채의 사각형이 하늘을 유영하는 듯, 별빛이 쏟아지는 듯한 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동시에 사각형들은 서로 중첩되어 있거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기에 공간감을 자아내는 한편 비행기를 타고 도시를 내려다봤을 때의 풍경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양한 원색의 사각형은 속도감, 공간감, 무게감을 드러내며 관람자에게 여러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런저런 환영을 자아내는 점으로 인해 말레비치는 ‘절대주의 구성’ 시리즈를 스스로 비판하면서 절대주의의 원래 기획을 거세게 밀어붙인 결과, <절대주의 구성: 흰색 위의 흰색>(1918)이 탄생하게 된다. 이번에는 흰 바탕 위에 비스듬히 흰 사각형이 있으나 흰 바탕과 흰 사각형은 미세한 색조 차이와 붓질로 구분이 될 뿐이다. <검은 사각형>이 극단적 색채와 형태를 통해 순수 형태의 추상을 보여줬다면 흰 사각형은 금방이라도 흰 배경 속으로 날아가 완전히 무(無)의 공간이 될 것만 같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스탈린이 권력을 잡으면서 ‘인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는 전위 예술을 탄압하였고, 말레비치의 추상도 저물게 되었다. 그러나 말레비치의 ‘엄청난 결실’인 비(非)대상적, 순수 조형적 회화는 이후 기하학적 추상, 미니멀리즘 미술, 디자인, 현대 건축 등에 영향을 주면서 여백과 간결한 외형으로 이루어진 현대도시의 풍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INVITATION TO THE ARTS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C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H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O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E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E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인디아아트홀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S SMA아트홀 1600-1602



SUN	MON	TUE	W
2	3	4	5
9	10	11	12
		우리동네 국립극장 '엔통이의 동요나라 2' 10:30 사 무료(36개월 이상 관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우리동네 국립극장 '엔통이의 동요나라 2' 10:30 사 무료(36개월 이상 관람)
16	17	18	19
		우리동네 국립극장 '엔통이의 동요나라 2' 10:30 사 무료(36개월 이상 관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우리동네 국립극장 '엔통이의 동요나라 2' 10:30 사 무료(36개월 이상 관람)
23	24	25	26
부산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Con brio 제20회 정기연주회 17:00 대 무료 / Con brio(010-5746-0205) 신지혜 귀국 피아노 독주회 17:00 챔 초대/신지혜(010-2833-9900)			



ED	THU	FRI	SAT
			1
5	6	7	8
2	13	14	15
의 동요나라 2' 10:30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우리동네 국립극장 '엔통이의 동요나라 2' 10:30 사 무료(36개월 이상 관람)/재)부산문화회관(607-6000)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7회 정기연주회 'VALENTEIN' 19:30</p> <p>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캔들라이트: 발렌타인 스페셜 19:30</p> <p>첼 6만6천원·4만6천원·3만2천원 크세모스 코리아 유한회사(080-352-8774)</p> <p>우리동네 국립극장 '엔통이의 동요나라 2' 10:30</p> <p>사 무료(36개월 이상 관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5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17:00</p> <p>대 초대/(사)송인문화재단(010-4183-2293)</p> <p>캔들라이트: 히사이시 조 최고의 작품 16:00, 19:30</p> <p>첼 6만6천원·4만6천원·3만1천5백원 크세모스 코리아 유한회사(080-352-8774)</p> <p>우리동네 국립극장 '엔통이의 동요나라 2' 11:00</p> <p>사 무료(36개월 이상 관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9	20	21	22
의 동요나라 2' 10:30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Sound of Busan : 브람스교향곡 전곡사이클_#1 유나이트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19:30</p> <p>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우리동네 국립극장 '엔통이의 동요나라 2' 10:30</p> <p>사 무료(36개월 이상 관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지브리&디즈니 OST FESTA 19:00</p> <p>대 9만원·7만원·5만원/아트인뮤직(02-525-4420)</p> <p>❖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_실내악시리즈 I '위대한 유산' 19:30</p> <p>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우리동네 국립극장 '엔통이의 동요나라 2' 10:30</p> <p>사 무료(36개월 이상 관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가톨릭합창단 제44회 정기연주회 '하느님 안에서 하나' 19:30</p> <p>대 전석 2만원/부산가톨릭합창단(010-7169-0404)</p> <p>부산남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회 정기연주회 17:00</p> <p>중 무료/부산남구청(607-4065)</p> <p>우리동네 국립극장 '엔통이의 동요나라 2' 11:00</p> <p>사 무료(36개월 이상 관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6	27	28	
		<p>김영두 귀국 바순 독주회 '귀환과 혁신:바순, 부산에서 새로움을 노래하다' 19:30</p> <p>첼 전석 1만원/김영두(010-8548-4011)</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
<p>전시실</p> <p>꿈이 있는 포도나무 미술학원 6회 전시회 2월 8일(토)-2월 9일(일) 전시실1 꿈이 있는 포도나무 미술학원 635-5333</p> <p>自然-스럽게 2월 12일(수)-2월 16일(일) 전시실1 자연스럽게 010-6361-4166, 010-7535-9806</p>			
2	3	4	5
9	10	11	12
16	17	18	19
<p>조현영, 이마숙의 승무 이야기 17:00 소 조현영(010-2844-3767)</p>			
23	24	25	26
<p>2025 장민호 전국투어 콘서트 '호시절(好時節) : 시간여행' 16:00 대 14만3천원-13만2천원/인터파크(1544-1555)</p>			

ED	THU	FRI	SAT
			1
5	6	7	8
2	13	14	15 ◆ 황치열 The Special 17:00 (대) 9만9천원·8만8천원·7만7천원·5만5천원 (재) 부산문화회관(607-6000)
9	20	21 ◆ (재)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살롱 드 바이올린-대니 구' 19:30 (소) 4만4천원·3만3천원/(재) 부산문화회관(607-6000)	22 2025 장민호 전국투어 콘서트 '호시절(好時節): 시간여행' 17:00 (대) 14만3천원·13만2천원/인터파크(1544-1555)
6	27	28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부산 클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들이 부산 클래식의 저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 3만원 S 2만원

(4개 공연 패키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의 자부심을 걸다

‘Sound of Busan’은 (재)부산문화회관이 2025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기획공연 시리즈로, 올해는 민간 오케스트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1993년 창단, 30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부산 최초의 민간 자선오케스트라인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개인과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법인예술전문교향악단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온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출연,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서의 자부심을 걸고 저력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인간의 내면과 깊이를 탐구한

브람스 교향곡 전곡 연주를 만나다

완고한 완벽주의자였던 브람스는 바로크와 고전과 음악에 굳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화성과 음색에 대한 대담하고도 새로운 시도로 당대 조성 음악의 개념을 바꾸어놓았다. 그는 오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4개의 교향곡들은 그의 음악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향곡 제1번을 가리켜 동시대 지휘자였던 한스 폰 뷔로는 ‘베토벤의 제10번 교향곡’이라고 부르며 베토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명작이라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브람스 자신은 베토벤의 교향곡들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향곡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첫 교향곡을 완성하기까지는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올해 무대에서는 인간의 내면과 그 깊이를 탐구한 브람스의 교향곡 전곡 연주를 만날 수 있다.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은 2월 20일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가 ‘교향곡 제2번’으로 포문을 열고 4월 4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향곡 제1번’을, 5월 29일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교향곡 제4번’을 연주하며 7월 25일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향곡 제3번 연주를 맡아 시리즈를 완성한다. 특히 각 공연에는 브람스 교향곡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협연자도 초청,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2월 20일(목)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_ 교향곡 제2번

·지휘 | 장운성 ·피아노 |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은 작곡에 착수한지 무려 23년만에 완성되었다. 첫 번째 교향곡의 부담감이 사라져서일까, 그의 두 번째 교향곡은 교향곡 제1번을 완성한 다음해, 그것도 작곡을 시작한지 불과 4개월만에 완성되었다. 당시 요양차 들린 오스트리아 페르차하에서 그곳의 자연이 주는 경이감과 생명력에 감동받아 작곡한 ‘교향곡 제2번’은 따뜻하면서도 목가적인 서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곡으로 ‘브람스의 전원교향곡’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무대에서 교향곡 제2번을 들려줄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nited Korean Orchestra: UKO)는 2006년 창단한 부산 최초의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로, 소아암과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매년 정기연주회와 국내외 초청연주회를 통해 지금까지 공연 수익금 5억여 원을 기부함으로써 200여 명의 꺼져가는 어린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데 기여했으며, 음악활동을 통해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지휘자 장운성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교향곡 제2번’ 외에도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들려준다.

지휘자 장운성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작곡과 지휘를 전공하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지휘과에서 수학하던 중 러시아 프로코피예프 국제지휘자 콩쿠르에서 2위 입상하며 본격적인 지휘자의 길에 들어섰다. 세계적인 작곡가 펜데레츠키에게 한국 정부가 위촉한 교향곡 제5번 ‘Korea’를 유럽에서 초연했으며, 일본 동경에서 매년 열리는 5,000명의 합창단이 부르는 베토벤 합창 교향곡 연주에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두차례 초청받기도 했다. 또, 러시아

마린스키 오페라 오스케스트라와 카메라타 상트 페테르부르크 한국 투어, 체코 야나체필하모닉, 브로노 필과 오스트리아 투어, 독일 뉘른베르크 심포니와 독일 4개 도시 투어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섰다. 장운성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객원지휘자와 울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일본 오사카 칼리지 오페라하우스,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작곡과 지휘전공 교수로 있다.

협연자인 러시아인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는 하마마쓰 국제피아노 콩쿠르 1위, 룽티보 크레스팽 콩쿠르 2위, 아서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마스터 콩쿠르 3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4위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한 촉망받는 피아니스트로, 테크닉과 풍부한 감성표현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세계를 주 무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홍콩, 뉴질랜드, 프랑스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며 재능있는 어린 음악가 양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라쉬코프스키가 들려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은 라흐마니노프가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며 작곡한 곡으로, 특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클래식곡 1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4월 4일(금)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_ 교향곡 제1번

·지휘 | 지중배 ·바이올린 | 김다미



‘위대한 교향곡’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은 말 그대로 브람스의 첫 교향곡이지만 완성까지 20년 이상 걸린, 그의 나이 43세에 완성된 역작이다. 오랜 시간 숙성된 만큼 구조가 견고하고 브람스 고유의 중후한 감정을 담고 있다. 이런 브람스 ‘교향곡 제1번’은 올해로 창단 32주년을 맞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오충근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21세기 문화환경 요구에 부합하는 교향악단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를 통해 클래식 정통 오케스트라로 호평받고 있다.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부산음악인 시리즈, 오페라 전막공연, 조수미 콘서트,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부산바다축제, 한·일 빅콘서트, 이태석음악회, 그리고 기업메세나음악회 등 수많은 연주를 통해 문화상품화의 가능성과 함께 음악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 지중배의 지휘로, 브람스 ‘교향곡 제1번’뿐 아니라 부산 출신의 차세대 작곡가 김종완의 창작곡 ‘완성의 여정’ 초연에 이어 브람스 생애 단 하나뿐인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77’을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은 서울대학교 김다미 교수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5월 29일(목)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_ 교향곡 제4번

·지휘 | 홍성택 ·피아노 | 노윤화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제4번’은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브람스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깊이를 담고 있어 앞서 베토벤 교향곡과 비교당했던 3개의 교향곡과 달리 진정한 브람스만의 음악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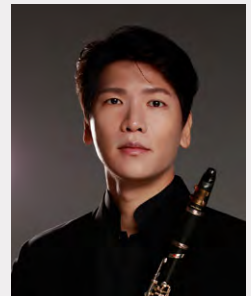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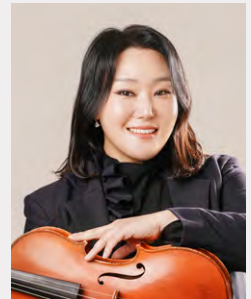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9년 7월 창단한 후 2015년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된 민간 오케스트라로, 특히 2013년부터 5년간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며 김정구와 함께 문화예술특구로 성장시켜왔으며 유튜브, 밴드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연 실황과 대담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며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무대에서는 오로지 음악의 본질과 깊이로 수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임지휘자 홍성택의 지휘로,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그리고 브람스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특히 브람스가 존경했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는 워싱턴 주립대학교 피아노과 교수로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노윤화가 협연한다.

7월 25일(금)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_ 교향곡 제3번

·지휘 | 윤상운 ·비올라 | 김남중 ·클라리넷 | 백동훈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의 피날레를 장식할 브람스 ‘교향곡 제3번’은 그의 교향곡 4곡 가운데 오늘날 가장 덜 연주되는 교향곡이지만 당대에는 브람스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큰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사)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96년 창단된 법인예술전문교향악단으로, 민간 오케스트라의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대형오페라 연주, 자선음악회, 시민을 위한 순외야외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음악감독으로 있는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의 지휘로, 독일 초기 낭만주의의 대표자인 베버의 ‘오이리안테’ 서곡과 후기 낭만파 작곡가 브루흐의 ‘클라리넷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 협주곡’, 그리고 후기 낭만주의 상징인 브람스의 ‘교향곡 제3번’을 통해 낭만주의 시대의 자유롭고 개성을 강조하는 음악예술을 다양한 장르로 선보인다. 특히 브루흐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기교적인 연주로 사랑받는 ‘이중협주곡’은 비올리스트 김남중과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의 앙상블로 들려준다.

부산 음악의 저력, 부산 음악의 자부심

• 김민지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장

부산은 오랜 음악적 전통과 지역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통해 독특한 문화적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도시이다. 20세기 초, 부산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도 다양한 문화적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특히 민간 오케스트라는 지역 음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발전해왔고, 이러한 활동은 부산 음악 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는 그저 연주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더욱 가까이 전달하며, 지역 예술의 저변을 확대해왔다.

지역 민간 오케스트라들은 대개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예술단체로, 그들이 가진 특성과 강점은 매우 다양하고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 오랜 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결, 지역 예술가와의 협력,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관객층, 지속적인 예술적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부산 민간 오케스트라의 성장과 도전

2025년 (재)부산문화회관은 부산 지역 민간 오케스트라들의 성장과 웅장한 도전을 함께하고자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을 선보인다. 부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오케스트라 중 이번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을 함께하는 4개의 오케스트라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1993년 창단),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1996년 창단), 유나이티드코리안오케스트라(2006년 창단),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2009년 창단)로 부산을 기반으로 오래도록 부산 음악의 발전과 클래식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민간 오케스트라이다. 해마다 정기 연주회 등 다양한 음악회를 통해 꾸준히 실력을 갖춰온 이 단체들은 창단 이후 국내외 유수의 지휘자 및 협연자들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역 오케스트라는 그 자체로 지역 문화의 중요한 축이자 예술적 자원이다. 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예술적 질의 향상, 교육적 활동,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지역 오케스트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오케스트라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교향곡 사이클을 기획, 첫 시작으로 완벽주의자 작곡가 ‘브람스’를 선정하였다.

완벽주의자 작곡가 브람스의

교향곡 전곡 사이클

독일 하노버 근처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브람스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음악에 대한 뛰어난 재능으로 어린 나이부터



유나이티드코리안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피아노 연주와 작곡을 시작했다. 브람스는 베토벤의 뒤를 이어 ‘교향곡의 후계자’로 자주 언급되었고, 그의 교향곡은 고전적인 형식에 충실하면서도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을 담고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브람스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을 매우 존경했는데, 그 거대한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첫 번째 교향곡을 완성하는 데 20년이 넘게 걸렸다. 그는 첫 번째 교향곡을 완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수정하고 다듬으며 고심했다. 이처럼 브람스의 교향곡 작곡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으며,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향곡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브람스의 교향곡은 그의 음악적 성취와 예술적 깊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그는 고전적인 형식을 따르면서도 낭만주의적 감성으로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창조했다. 그의 교향곡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클래식 음악의 중요한 레퍼토리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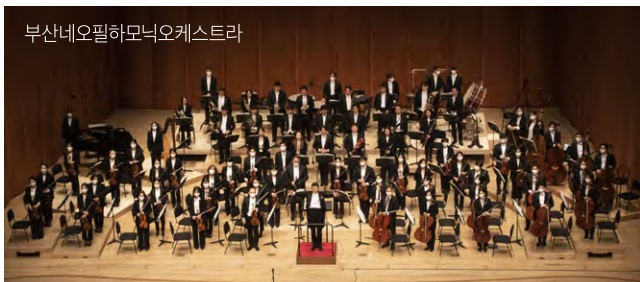
민간 오케스트라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공 공연장의 역할과 협력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은 (재)부산문화회관이 공공 공연장의 역할로 민간 오케스트라의 자생력 강화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기획·협력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 오케스트라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한편, 관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심을 유도, 작품성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다양화로 새로운

관객층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 지역 청년 예술인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다각화된 네트워크 구축으로 새로운 공연 시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공공 공연장으로서 마련하고자 (재)부산문화회관은 인적, 기술적, 재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 장려를 통해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펼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결 고리로 민간 오케스트라와의 레퍼토리 개발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적 접근성을 강화,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민간 오케스트라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더욱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음악을 통해 부산은 문화적으로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도시로 발전할 것이며, 민간 오케스트라는 그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을 이어갈 것이다. 특히, 부산은 지역이 가진 항구 도시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민간 오케스트라와 공공 공연장이 예술적 경험을 통한 긍정적 유대관계 형성과 이 모든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때, 민간 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예술적 가치를 널리 퍼뜨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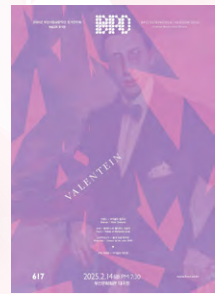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사랑하는 이를 위한 특별한 발렌타인데이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7회 정기연주회

VALENTEIN



2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휘 백승현



바이올린 박은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서 더욱 특별한 날,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로맨틱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2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617회 정기연주회 'VALENTEIN'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백승현 부지휘자의 지휘로, 브람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77'과 포레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1919 ver.) 등 사랑을 주제로 한 낭만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브람스의 걸작 '바이올린 협주곡'은 2024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은중의 깊이있는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첫 곡인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베토벤, 멘델스존 협주곡과 더불어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명곡으로, 매

우 정열적이면서 아름답고 따뜻한 낭만의 정서가 가득한 작품이다. 특히 이 곡은 당대의 명 바이올리니스트 요아힘에게 헌정된 곡으로, 초절적 기교를 요구하는 난곡만큼 협연자 박은중의 연주에 기대가 모아진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은중은 일찍이 국내 우수 콩쿠르를 석권하며 두각을 나타냈으며, 지난해 개최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준우승과 함께 유네스코 창 의도시 특별상(관객상)을 수상하며 평단, 관객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 국립음대 실내악과정에 재학 중인데, 특히 실내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2019년부터 현악 4중주단 '아레테 콰르텟' 멤버로 활동 중이다. 그가 속한 아레테 콰르텟은 2021년 5월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콩쿠르 현악 4중주 부문 한국인 최초 1위 수상 및 5개의 특별상을 모두 석권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후 2022년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특별상, 2023년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현악 4중주 부문 우승 및 모차르트 현악 4중주 최고해석상, 2024년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 1위 및 5개 특별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그 실력을 입증했다. 특히 2025년 현악 4중주단으로는 최초로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되면서 올 한해 관객들과 깊이 있는 교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어지는 곡은 포레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으로, 우리에게는 노벨상 수상자이자 '파랑새'의 작가로 유명한 마테를링크가 쓴 희곡의 부수음악으로 작곡된 곡이다.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는 두 이복형제인 펠레아스와 골로 왕자, 그리고 숲 속의 신비로운 소녀 멜리장드의 어긋난 사랑과 죽음으로 치닫는 비극을 담은 작품으로, 드뷔시와 쇤베르크, 시벨리우스 등 동시대 작곡가들이 오페라, 교향시, 모음곡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발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곡이다. 이 중 포레의 모음곡은 17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부수음악에서 4개의 악장을 발췌하여 구성한 곡으로,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를 소재로 한 여러 작품 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3악장인 ‘시실리엔느(Sicilienne)’는 매혹적인 멜로디와 감성적인 분위기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마지막 곡인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은 ‘페트루슈카’, ‘봄의 제전’과 더불어 그가 작곡한 3대 발레음악 중 최초의

작품으로, 스트라빈스키를 국제적인 명성으로 이끌어준 작품이다. 슬라브 민담에 나오는 ‘불새’를 모티브로 한 ‘불새’는 전통적인 러시아 민속 선율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리듬과 색채감 넘치는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스트라빈스키는 이후 이 작품을 관현악 모음곡으로 세 차례 개작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3가지 버전의 모음곡 중 원곡의 내용을 더욱 잘 함축하여 오늘날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1919년 버전으로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실내악 시리즈 I

위대한 유산



2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25년에도 정기연주회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다채로운 실내악 음악의 세계를 소개하는 ‘실내악 시리즈’를 진행한다. ‘실내악 시리즈’는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아닌 실내악 주자로서의 단원들의 기량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임흥균 악장이 직접 기획한 보다 다양하고 특별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그 첫 무대인 ‘위대한 유산’에서는 19세기 현악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슈베르트와 라벨, 차이콥스키의 곡을 들려준다. 특히 현악 3중주와 4중주, 6중주 등 다채로운 구성의 연주와 더불어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출생지가 다른 세 작곡가의 음악적 색채를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다.

첫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신효은, 비올리스트 권덕진, 첼리스트 이금빈이 들려주는 슈베르트 ‘현악 3중주 D. 471’.



1악장과 2악장 일부로 구성된 미완성 곡이나 슈베르트 특유의 풍부한 감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경쾌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선율로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고 있는 작품이다.

이어지는 작품은 라벨의 유일무이한 현악 4중주곡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임정은, 이현재, 비올리스트 윤솔샘, 첼리스트 최지현의 연주로 들려준다. 라벨이 처음 작곡한 실내악곡으로 그의 스승이었던 포레에게 헌정됐으나 정작 드뷔시로부터 큰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라벨이 신인 작곡가로서 그 이름을 확고히 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다.

마지막 무대는 차이콥스키가 이탈리아 여행 중 모티브를 얻어 작곡한 현악 6중주 ‘플로렌스의 추억’으로, 임흥균 악장을 비롯하여 바이올리니스트 신효은, 비올리스트 황여진, 권덕진, 첼리스트 이일세, 이금빈이 연주한다. 이 곡은 흔치 않은 구성인, 기본 현악 4중주에 비올라, 첼로 한 대씩을 추가, 한층 더 저음부가 강조되고 중후한 곡으로 탄생됐는데, 특히 러시아의 토속적인 선율이 사용되면서 이탈리아적이면서도 러시아적인 색깔이 많이 묻어난다.

부산시민회관 토크 콘서트

살롱 드 바이올린 대니 구

2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R석 4만4천원, S석 3만3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패키지 4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살롱 드 바이올린' 첫 번째 무대가 2월 21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의 특별한 주인공은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신나는 음악가이자 가장 인기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특히 최근 TV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 '루틴맨'이라는 별명과 함께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1991년 시카고에서 태어나 6살에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한 대니 구는 전설적인 헬렌 칼바서의 마지막 제자로,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였다. 2016년 앙상블 디토의 멤버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이후 정통 클래식 무대뿐만 아니라 재즈, 팝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또한 '클래식 가이드'로서 아이들에게 클래식을 더 재미있고 접근하기 쉬운 음악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핑크퐁 클래식'이라는 클래식 뮤지컬 무대의 주역으로도 꾸준히 무대에 서오고 있다. 특히 대니 구는 MBC '복면가왕', KBS대기획 '지구 위의 블랙박스', KBS '더시즌즈-박재범의 드라이브', JTBC '슈퍼밴드2'와 다수의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출연하여 폭넓은 음악



적 스펙트럼과 친근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대중적 호응을 얻으며 큰 인기를 끌었고 탁월한 진행능력으로 MBC 'TV예술무대' MC를 맡기도 했다. 특히 '슈퍼밴드2'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감성이 굉장히 좋은 뮤지션'이라는 평가와 함께 뜨거운 무대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클래식한 스튜디오-클래식 품나계'의 진행을 맡아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중과 클래식 음악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니 구의 삶과 함께 해온 바이올린에 대한 진솔

한 이야기를 통해 대니 구만의 솔직한 매력에 빠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한편, '살롱 드 바이올린'의 두 번째 주인공은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독보적인 아티스트 KoN(콘)으로, 6월 20일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바이올린 전공을 살려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하다 점차 영역을 넓혀 집시, 재즈, 탱고, 크로스오버,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KoN(콘)은 한국 최초의 액터-뮤지션(노래와 연주가 가능한 배우)으로 국내외를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3월 7일 금요일 오후 2:00, 7:30, 8일 토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전시실1

전석 3만원(13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배우와 관객이 직접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이 부산을 찾는다.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은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연이은 매진과 호평을 받은 영국의 젊은 극작가 던컨 맥일란의 작품으로, 배우 한 명의 독백으로 진행되는 1인극이자 관객 참여로 만들어지는 이머시브(관객 참여형) 연극이다. 이 작품은 2013년 영국에서 초연된 후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상연됐으며 2016년에는 미국 유료 채널 HBO에서 공연 실황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하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 두산아트센터, 2021년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무대에 올라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관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 특별한 작품은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서 빛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온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7살의 주인공 ‘나’는 우울증을 겪는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쓰기 시작한다. 아이스크림, 물총싸움, 밤에 몰래 TV 보기 등... 이후 시간이 흘러 대학에 입학한 ‘나’는 사랑과 상실을 경험하며 다시 리스트를 쓰기 시작한다. 삶의 무게가 짓눌려와도 ‘내게 빛나는 모든 것’들은 ‘나’를 기쁘게 해 줄 수 있을까. 주인공은 인생에서 만나는 온갖 슬픔과 아픔에도 ‘세상에서 빛나는 것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 자칫 심각하고 비관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작가는 따



뜻하면서도 희망적으로 그려낸다.

특히 이번 작품은 ‘연극이 주는 최고의 경험’이라는 찬사처럼 진정한 관객 참여극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무대 위 4면으로 둘러싼 객석에 앉은 관객들은 배우의 요청에 따라 주인공이 성장하며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는 이야기 속 인물들의 역할을 즉석에서 맡아 ‘나’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해간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주인공의 내밀한 이야기에 모두가 함께 웃고 울며 공감하며 인생에서 만나는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인생은 그만큼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되새긴다.

이번 무대에서 주인공 ‘나’ 역에는 뮤지컬과 연극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인상 깊은 연기를 뽐내는 베테랑 배우 김아영과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내는 투명하고 강한 배우 정세별이 맡아 공연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쌀은 밥이 되고 밥은 쌀이 된다

박주호 개인전 'Awareness'
2025. 1. 10~3. 2, Carin Gallery



김학수 화가, 나무의사

2025년 박주호 작가의 신년 전시회 소개 글에 ‘밥과 쌀이라는 형상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존재의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인지하는 과정’이라는 문구를 보았다. ‘밥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하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이내 밥을 가지고 무슨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전시장에서 작가가 제시한 ‘밥과 쌀’, ‘그릇’, ‘사람’ 속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존재의 문제에 대한 답론은 무엇일까? 전시장에는 작품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딱 한 군데 있다. 지하 전시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시작점에 있는 좁은 공간이 그곳이다. 전시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그곳에서 전시장 전경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작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그제야 작가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밥과 쌀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밥 작업은 어머니를 향한 감상적 태도에 머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마음을

사유하는 도구로 삼았다. 반복적으로 원을 그리는 행위는 주된 행위가 되고, 화면의 변화에 호흡하면서 별별 것을 담았을 것이다. 120호 7폭 광폭에 드러난 무수한 밥알은 대상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사유의 덩어리이다. 최초의 밥알은 작가의 관념 속에서, 또 작가의 손을 통해 무한히 번식한다. 따라서 집합적인 형태를 띠는 밥과 최소한의 밥알은 근본적으로 그 성질과 크기가 같다. 작가는 밥이 밥알이 되고 밥알이 밥이 되는 관계를 통해 관념 세계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곱 개의 캔버스가 연결된 광폭 작품에는 직선이 완전히 배제된다. 곡선은 다양한 각을 갖고 있어서 직관적으로 수용되는 느낌이 있고, 직선은 자유롭지 않으나 이해 속에서 수용되는 느낌이 있다. 이러한 형태적 특성이 쌀과 밥알의 형태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작품 전체에 직관성이 강하게 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쌀의 호화된 표면으로 수용력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직선이 배제된 사유가 결국 직관적 사유만을 그림에 남기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도리어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잠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다. 말 못 하는 것들을 다루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끊임없이 이성적 사고로 극복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 당위성이 발생할 텐데, 구도자적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 속에서, 작가는 항

상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릇

그릇은 담기는 것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나 종속적이진 않다. 그래서 담을 대상의 용도와 어울림을 생각하여 그릇을 선택한다. 작가는 막사발을 선택했다. 화려함과 멋을 동일시할 수 없다. 막사발은 흙이라는 재료의 물성과 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주는 그릇이다. 막사발은 화려하지 않지만, 자신이 가진 고유 성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멋이 있다. 막사발의 이러한 특성이 근원적 문제를 사유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와 유기적인 측면이 있다.

또 유기성을 갖는 대상들은 한 지점에서 모이고 방향성을 갖는다. 작가의 사유 행위를 통해 한 알 한 알 수많은 밥알들이 그릇으로 모인다. 그릇은 작가가 사유한 것들이 모이는 장소이며 작가의 이상향을 드러낸다. 수수하고 편안한 사람, 질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 그릇에 담겨있다.

사람

그릇은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한다. 그 모습이 사람의 몸과 닮았다. 순간 그릇에 담긴 밥의 형상이 사람을 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흙으로 빚은 몸과 그 속에 담긴 낱, 그 몸과 낱은 오롯이 작가의 것이니 자화상을 그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작가가 그린 밥을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작가는 이 문제를 풀 실마리로 사람 조각을 세워두었다. 작가의 정언 중에 ‘쌀은 밥이 되고 밥은 살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다. 순환은 같은 성질을 공유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같은 형태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비의 생활사를 보더라도 알, 애벌레, 번데기, 나비로 변태하지만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성질을 공유하므로

우리는 나비와 애벌레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품은 작가로부터 나왔으므로 작가와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작가가 정언을 통해 순환의 원리를 짚고 넘어간 것은 그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밥과 쌀, 그릇과 사람 또는 작가 자신은 작품 속에서 순환하는 존재로 성질상 같은 것임을 알아차리길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의 관념에서 밥이 담긴 그릇은 사람과 같은 것이며 작가 자신과도 같은 것이 된다.

‘쌀과 밥’, ‘그릇’, ‘사람’을 가지고 작가가 제시하는 근원적인 존재의 문제는 무엇일까? 사람은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한다. 몸은 물질을 채우고 배설하고, 혼은 정신을 채우고 고쳐먹으며, 영은 영을 채우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동한다. 사람을 이루는 각각의 그릇은 그 조성과 성질이 같은 것을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하며 서로 순환한다. 그런데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과 자신 밖에 존재하는 필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가 ‘근원적인 존재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필요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일이다.

사람은 매 끼니 그릇을 채우고 비우는 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이 종속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무의식적 행동을 인지함으로써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허기진 사람과 쌀 사이에 실이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쌀을 끌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쌀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쌀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쌀이 실제 쌀이든 사유든 영원이든 사람은 그 쌀이 필요하고 그 쌀은 그 사람 밖에 존재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종속되어 있어서 어떠한 것도 생산할 수 없다. 그나마 사람은 사유 속에서 생산하므로 생산의 쾌감 속에서 사유하는 일에 집착하는지도 모르겠다. 허기와 배부름이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사람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부분이 참 짝하다.

작가에게 묻고 싶다.

저 밥알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동네 국립극장 **엔통이의 동요나라 2**

일 시 | 1월 14일(화)-2월 22일(토) 평일 오전 10:30, 주말 오전 11:00
(매주 일·월요일 휴관, 1/27일~2/10 일 무대점검 기간 휴관) **사랑채극장**
입 장 료 | 무료(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국립극장에서 진행된 우수 공연을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우리동네 국립극장 '엔통이의 동요나라2'. 국립극장 캐릭터 엔통이와 함께 친숙한 동요를 아름다운 국악 연주로 선보이는 어린이 음악회로, 감정 표현이 서툰 여섯 살 어린이 '교진이'가 악기친구 '엔통이', '까르르', '까칠이'와 함께 악기나라를 여행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특히 '꽃을 꺾지 마세요', '친구가 되는 멋진 방법', '똥레똥레' 등 친근한 창작동요를 비롯해 '엔통이의 동요나라2'를 위해 작곡한 '내 말은 말', 공연 주제가인 '엔통이의 노래'까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부산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콘브리오 제2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23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콘브리오 오케스트라 010-5746-0205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부산대학교 아마추어 대학생 오케스트라인 '콘브리오' 정기연주회. '콘브리오'는 지난 2012년 7월 창단한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아마추어 교향악 축제, 부산 문화 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콘브리오(Con Brio)'는 '기운차고 활발하게 연주'한다는 뜻의 음악용어.

프로그램

- 브람스/대학축전 서곡 작품 80
-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 브람스/교향곡 제1번 다단조 작품 68
- 지휘/정현진

부산가톨릭합창단 제44회 정기연주회 **하느님 안에서 하나**

일 시 | 2월 22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주보 지참시 50% 할인)
문 의 | 부산가톨릭합창단 010-7169-0404



1982년 창단한 후 천주교 부산교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한 부산가톨릭합창단이 2025년 신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하느님 안에서 하나'. 부산가톨릭청년합창단과 cpbc부산가톨릭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손꼽히는 '대관식 미사'를 들려준다. 이 곡은 '장엄미사 C 장조'와 더불어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미사곡으로, 1779년 4월 부활절 미사를 위해서 작곡됐으며, 종전의 미사곡에 비해 악기 편성이 대규모로 확대되어 전체적인 악상이 활기차고 장대한 느낌을 준다.

김영두 귀국 바순 독주회 **귀환과 혁신: 바순, 부산에서 새로움을 노래하다**

일 시 | 2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김영두 010-8548-4011



바순의 깊이 있는 음색과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하고 있는 바순니스트 김영두의 귀국 독주회. 김영두는 울산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전문연주자로 활동하다 만 30세라는 늦은 나이에 학문과 연주에 대한 갈증으로 독일로 유학, 로스톡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며 전문연주자로서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 귀국 후에는 노닛 앙상블인 앙상블 구도의 대표와 바순 실내악팀 Die Fagottisten 리더로 활동하면서 현대음악상상을 프로젝트 원의 바순 연주자로 현대음악의 새로운 해석과 시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음악적 여정과 성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 피아노/박지은

황치열 The Special

일 시 | 2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한국에서는 물론 아시아 전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며 현재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로도 활약하고 있는 대표 한류 아티스트 황치열 콘서트 'The Special'.

2015년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미스터리 싱어로 출연, 뛰어난 보컬 실력으로 센세이션하게 등장한 황치열은 허스키한 보이스를 바탕으로 전 음역을 구사하는 뛰어난 보컬리스트이자 작사, 작곡 능력까지 갖춘 싱어송라이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대표곡들로 꾸며질 이번 무대에서는 여자아이돌 '단발머리'로 데뷔, 윤종신의 '좋은 날' 답가 버전으로 1,200만뷰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은 싱어송라이터 미교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2025 장민호 전국투어 콘서트 **호시절(好時節):시간여행**

일 시 | 2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23일 일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 장 료 | 화이트석 14만3천원, 민트석 13만2천원
문 의 | 인터파크 1544-1555



오랜 무명 생활을 극복하고 트로트 스타로 등극한 장민호 전국투어 콘서트.

1997년 아이돌 보이그룹으로 데뷔한 후 오랜 시간을 무명으로 지내다 2020년 '미스터리'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한 장민호는 현재 가수 겸 예능 프로그램 MC로도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에서 막을 올린 '호시절(好時節): 민호랜드'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선보이는 전국투어로, 특히 최근 발매된 세 번째 미니 앨범 '에세이 ep.3' 수록곡까지 포함해 한층 풍성한 레퍼토리와 다채로운 무대 구성으로 음악 팬들의 기대를 더하고 있다.

2025 HMF 해운대 음악제

일시 | 2월 3일 월요일 오후 6:00 HMF아트홀
5일 수요일 오후 7:30 H Classic Hall
7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7일 공연은 3만원)
문의 | GAON CLASSIC 070-8811-0513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영호를 음악감독으로, 국내 정상의 연주자들이 펼치는 2025 HMF 해운대 음악제.

2월 3일 'Piano Gala' 무대를 시작으로 부산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예술가들이 펼치는 'Young Artists Showcase', 그리고 7일 'Favorite Chamber Music'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3일(월) Piano Gala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김성훈, 부산대학교 교수 이윤수, 유럽 ICPA 소속 아티스트 및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김경아,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성해린, W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주연주자 겸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이선호가 펼치는 피아노 갈라 무대. 김성호, 이윤수, 김경아의 독주 무대에 이어 성해린, 이선호의 듀오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판타지아 라단조 K.397
베토벤/판타지아 사단조 작품 77
슈만/아베그 변주곡 작품 1
라흐마니노프/코렐리 테마에 의한 변주곡 작품 42
라벨/네손을 위한 스페인 랩소디

5일(수) Young Artists Showcase

국내외 다수 콩쿠르에서 수상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온 젊은 연주자 5인의 열정 가득한 무대.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7번 라장조 작품 10
랄로/첼로 협주곡 라단조 작품 37
차이콥스키/페초 카프리치오소 작품 62
슈만/토카타 다장조 작품 7
비에니아프스키/파우스트 판타지 작품 20
슈베르트/즉흥곡 D.935 등

- 연주/최주원(피아노), 이세종(첼로), 김동욱(피아노), 김유담(바이올린), 이태운(피아노), 성해린(피아노)

7일(금) Favorite Chamber Music

음악감독 김영호와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해경(플루트), 서울대학교 김두민 교수(첼로), 부산대학교 교수 및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리더 김동욱(바이올린),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이일세(첼로), 동아대학교 박정희 교수(피아노), 부산대학교 안명주 교수(플루트), 청주시립교향악단 수석 우영욱(플루트), 과천시립교향악단 수석 오병철(플루트), 국민대학교 성해린 겸임교수(피아노), 연세대학교 김현아 교수(바이올린),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단원 임성윤(바이올린), KBS교향악단 수석 진덕(바이올린)이 함께하는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고베르/피아노와 첼로, 플루트를 위한 3개의 수채화
멘델스존/피아노 트리오 제1번 라단조
비프틴크/켈틱 포레스트
슈만/피아노 5중주 마장조 작품 44

2월 금정수요음악회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현장 구매)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2004년 9월 첫 무대를 시작으로 올해로 22년째를 맞는 금정문화회관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 '금정수요음악회' 2월 무대.



5일(제876회) 피아니스트 김경미의 여섯 번째 음악 이야기 'Meine geliebte Clara 내 사랑 클라라'

'Liederabend(가곡의 밤)' 시리즈로, 관객들에게 다양한 가곡들을 소개하고, 가곡이 가진 아름다움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피아니스트 김경미의 음악 이야기' 여섯 번째 무대.

슈만과 클라라, 브람스의 이야기를 그들의 가곡과 함께 들려준다.

- 피아노/김경미
- 테너/김총희(부산대학교 교수)
- 콘서트 가이드/김성민



12일(제877회) 스피렌데라 앙상블 '4인 4색'

경상지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이안나, 바이올리니스트 남가영, 비올리스트 윤솔샘, 첼리스트 신윤경으로 구성된 피아노사중주단 스피렌데라의 무대.

2020년 결성된 후 2022년 부산마루국제음악제에서 부산 음악인으로 선정된 스피렌데라는 이번 무대에서 슈베르트와 모차르트, 타네에프, 말러의 곡을 들려준다. 스피렌데라는 '반짝반짝 빛나는'이라는 뜻.

프로그램

슈베르트/현악 3중주 내림나장조 작품 471
모차르트/피아노 4중주 제2번 내림마장조 작품 493
타네에프/피아노 4중주 마장조 작품 20
말러/피아노 4중주 가단조



19일(제878회) 박필은, 김진희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부산대학교 동문으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피아니스트 박필은, 김진희 듀오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에서 좀처럼 듣기 힘든 피아노 듀오 버전

의 슈만과 브람스의 대표적인 실내악곡을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브람스/네손을 위한 피아노 5중주 바단조 작품 34
슈만/네손을 위한 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26일(제879회) 프라이드 타악기 앙상블 정기연주회 'Arte Percussion'

부산, 경남 시립교향악단 및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타악 연주자들로 창단된 프라이드 타악기 앙상블 정기연주회.

'꿈의 타악기 리듬 앙상블(Percussion Rhythm In Dream Ensemble)'이라는 의미를 지닌 프라이드(PRIDE) 타악기 앙상블은 그동안 클래식을 비롯한 현대음악, 라틴음악, 퓨전음악 등 장르 구별 없이 타악기 앙상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 연주/예병현(대표), 박종식, 최대섭, 양진일, 임혜민, 이정민, 김은호, 최은서
- 콘서트 가이드/김성민

이영은과 시민성악가들의
BEL CANTO 시간여행

일 시 | 2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이영은 010-9325-3959



노래를 사랑하는 아마추어 성악가들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

1, 2부로 나뉘어 국내외 가곡 및 민요,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봄치녀, 벨라 판타지아, 사공의 노래, 봄이 오면, Bel Piacere,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Non t'amo più), 위연가, Caro Mio Ben, 진달래꽃, 선구자, 고향의 노래 등 수곡

- 소프라노/황윤서, 조찬하, 조하민, 김민진, 박은주, 정연주, 정요안나
- 테너/고재철, 박원기, 서수호, 석봉원, 성창용, 정진욱
- 지도교수/이영은 • 반주/박은정, 김선화

여강 피리독주회 | **歌舞音曲**

일 시 | 2월 9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여강 010-5744-7489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전수자이자 국악양상블 탈피(TALPI)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리주자 여강의 무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여강은 이번 첫 독주회에서 피리와 함께한 지난 15년간 느낀 희노애락을 피리 선율에 담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박범훈류 피리산조(피리 여강, 장구 장수호)
경기음악연곡(피리 여강, 대금 김운우, 아쟁 배런, 경기소리 김민지, 장구 김성찬, 징·제금 장수호)
태평소 시나위(피리 여강, 팽과리 장수호, 장구 김성찬, 북 배런, 징 김운우)

다운 피아노 앙상블의 여섯 번째 이야기
One Piano Two Pianists

일 시 | 2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다운 피아노 앙상블 010-3736-7175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아영, 김지은, 박나희, 오현지로 구성된 다운 피아노 앙상블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쇼팽, 그라나도스, 바버, 하차투리안과 생상, 거슈윈의 곡을 독주 및 듀오 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쇼팽/스케초 제2번 작품 31
그라나도스/알레그로 데 콘체르토 작품 46
바버/네 손을 위한 모음곡 작품 28 '추억'
하차투리안/네 손을 위한 '가면무도회' 중 '왈츠'
생상/동물의 사육제
거슈윈/네 손을 위한 '랩소디 인 블루'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제1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5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010-3146-8434



음악과 클라리넷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숨쉬고 있는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의 무대.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은

2007년 창단 후 매주 합주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계발과 단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매년 정기연주회와 기획 연주, 특별 연주, 찾아가는 음악회로 관객과 함께하고 있다.

특히 환우, 사회약자, 문화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통해 음악사랑을 펼치고 있다.

- 지휘/김태훈

첼리스트 홍진호
진호의 책방: 별 음악을 읽다

일 시 | 2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통해 섬세한 첼로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첼리스트 홍진호의 특별한 무대.

'진호의 책방'은 2019년 온라인 콘서트로 시작한 홍진호의 복콘서트로, 알퐁스 도데의 '별'과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소재로 첫사랑이 주는 설렘과 성숙한 사랑의 감성을 음악으로 전한다.

특히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 피아니스트 최문석과의 호흡으로 클래식은 물론 보사노바, 탱고 음악의 이국적이고 아련한 멜로디로 특유의 따뜻한 감성을 관객과 나눈다.

부산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8844-0506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로 하모니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예술교육을 통해 '협동, 이해, 질서, 소속감, 책임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결성된 부산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23년 5월, 제1회 정기합주 및 창단설명회를 통해 첫발을 내딛은 부산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듬해 2월 18일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매주 토요일 연습과 일년에 두차례 뮤직캠프를 통해 실력 향상에도 힘써오고 있다.

- 지휘/정현진

노귀혜 피아노 콘서트

일 시 | 2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Kongnamul 010-4825-7807



부산음악협회,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노귀혜의 무대.

노귀혜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Musicfest Northwest 콩쿠르에서 1위 우승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솔로 연주뿐 아니라 듀오, 트리오와 같은 앙상블,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협주에서도 빛을 발하는 악기 피아노의 모든 것을 다채로운 구성의 연주로 들려준다.

- 출연/최태수(피아노), 박영지(바이올린), 부경챔버오케스트라(지휘/김태훈)

Con Brio 제9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6일 일요일 오후 3: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 의 | Con Brio 010-9449-3737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 10명으로 구성된 Con Brio의 무대.

Con Brio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열쑥조타! 꿈꾸는 동래! 문화 교육 특구 페스티벌, 위아자 장터 악기, 문화과 음악이 만나는 공간, 어린이대공원 어린이 베틀시장 오프닝 연주, 유니세프 아우니 인형 대축제, 해운대 빛 축제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으며, 요양병원 봉사연주를 통해 음악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합주뿐 아니라 플루트, 피아노, 우쿨렐레, 칼림바, 드럼 등 독주 연주와 함께 성악, 트로트, 재즈 등 다양한 보컬 무대도 선사한다.



피아니스트 박정난 제자들과 함께하는 클래식 여행 시리즈 III

일 시 | 2월 20일 목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박정난뮤직솔레음악원 010-2395-1103

피아니스트 박정난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연주자들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클래식 여행 시리즈 세 번째 무대.

쇼팽, 아렌스키, 드보르작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 속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으로, 독주에서부터 듀오, 네손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그들만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 쇼팽/왈츠 마단조 작품 14
- 아렌스키/모음곡 제1번 작품 15(2piano)
- 드보르작/슬라브 무곡 작품 46(4hands)
- 연주/박정난, 임하연, 박윤서, 이유정, 백찬미



박지은 피아노 독주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2 루드비히의 열망

일 시 | 2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박지은 010-5799-5890



현재 왕성한 연주활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지은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두 번째 무대. 박지은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우등 졸업하고 독일 뮌헨 국립음

대 석사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현대음악 석사과정, 오스트리아 모짜르테움 최고연주자과정을 모두 만점 졸업하였다.

일찍이 국내외 콩쿠르를 석권하며 피아니스트로서의 자질을 키워온 박지은은 지난해 7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첫 번째 무대에서 탄탄한 연주력으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8번과 제11번, 제20번과 제30번을 들려준다.

2025 해운대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최정원&3 Tenor&민영치

일 시 | 2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마련하는 '2025 신년음악회'.

상임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부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1세대 뮤지컬 배우 최정원, 테너 김준연, 김지호, 양승엽, 그리고 국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재일교포 3세 음악가 민영치가 출연,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과 신년 인사를 나눈다.

부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 2021년 창단된 부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뛰어난 음악과 깊이 있는 연주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세계적인 지휘자 김봉미의 탁월한 음악 해석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

로, 매년 10회 이상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부산시민들에게 고품격 클래식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1989년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로 데뷔한 34년 차 배우 최정원은 탄탄하고 기록 없는 노래와 연기, 춤 실력으로 현재까지 무대 위에서 주조연을 넘나들며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고 있다.

테너 김준연은 2019 대한민국 문화예술부분 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울주군 여성합창단 지휘자,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학과 외래교수로 있다. 김지호는 부산음악상 및 부산예총 공로상을 수상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초빙교수, 부산성악가협회 회장으로 있다. 양승엽은 국제콩쿠르 U. GIORDANO, Citta di Angro, M. Batisttini, Citta di Nettuno에서 입상하고 현재 부산음악협회 부회장, 오페리움 한울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음악이라는 틀을 고집하지 않고 유유히 경계를 넘나드는 민영치는 그동안 싸이, 신해철, 이문세, 패닉 등 대중가수, 정명화, 정경화, 조수미, 양방언 등 세계적 음악가들과도 함께 작업했으며, 국악과 재즈의 만남인 '신한악(新韓樂)' 프로젝트를 이끌며 음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5 11시 브런치 콘서트 **클래식 북카페**

일 시 |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커피 포함)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딱수 달, 마지막 주 화요일 열리는 금정문화회관의 고품격 브런치 무대 '11시 브런치 콘서트'. 2025년 첫 무대인 이번 브런치 콘서트에서는 '클래식 북카페'라는 주제로,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메리메 등 고전문학 속에 담긴 글귀가 어떻게 음악과 만나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프로그램

- 마스네/타이스의 명상곡
- 쇼팽/발라드 제1번 사단조
- 왁스만/카르멘 판타지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17번 '템페스트'
- 해설/조희창(음악평론가) • 바이올린/윤여영
- 피아노/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문학 속에 흐르는 클래식 시리즈 1
무라카미 하루키 ARTISTA

일 시 | 2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문학 속에 흐르는 클래식 시리즈'는 '더 아티스타'가 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자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와 문학 속의 클래식 곡들을 선정, 자신들만의 편성으로 편곡하여 들려주는 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감각적이면서도 독특한 문체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에 나오는 클래식 곡을 작품 해설 및 소설의 텍스트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출연/황미리(플루트), 김경태(클래식기타), 김재준(피아노), 이영훈(퍼커션), 김종완(반도네온), 김대경(콘트라베이스)

해운대문화회관 On Stage Concert
폴리포니 기타듀오

일 시 | 2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학생 40% 할인)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무대 위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공연을 이끌어가는 해운대문화회관 On Stage Concert 2025년 첫 무대. 기타리스트 김경태, 서승완으로 구성된 폴리포니 기타듀오는 클래식, 영화음악, 국악, 남미무곡 등 음악의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특히 2011년 첫 음반 'Song of Polyphony'에 이어 2015년에는 두 번째 음반 'ROMANCE'를 발매했으며, 2012년을 시작으로 2015년과 2016년 윤이상국제음악제 프린지에 세차례 참가하여 Rising Star로 선정된 바 있다.

- 진행/김성민(콘서트 가이드)

송하림 대금독주회 **최종화**

일 시 | 2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송하림 010-4052-8668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에서 대금을 전공하며 음악적 기량을 쌓아온 대금주자 송하림이 졸업을 앞두고 전문 국악인으로 첫 걸음을 내딛으며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최종화'.

공연 타이틀인 '최종화'는 주로 '이야기의 마지막'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학생에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신인 연주자로, 또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서 자신의 음악을 조금씩 표현해나가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순간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송하림이라는 한 사람의 성장 이야기가 담겨있는 무대로, 그동안의 배움과 경험은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뮤지컬 **택시 안에서**

일 시 | 2024년 3월 1일(금)-Open run 수-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30,
 6:00, 일요일 오후 2:30, 5:00(월-화
 요일 공연없음) **해바라기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만 12세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문 의 | 극단 바라 1600-1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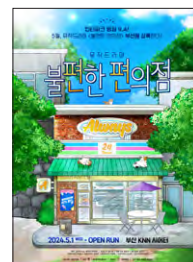
웃음과 감동, 사랑이 시작되는 리얼타임 코믹극 '택시안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만남으로 연애를 시작한 하영과 소희, 그러나 오랜 연애 끝에 두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고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한다. 뒤늦게 후회가 밀려온 하영은 소희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타게 되고 유쾌한 택시기사 민수와 만나게 되는데...

현실 커플 120% 공감스토리로, 리얼타임극에 걸맞는 속도감 있는 전개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뮤지컬 **불편한 편의점**

일 시 | 2024년 5월 1일(수)-Open run
 수요일 오후 4:30, 7:30,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월-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 장 료 | 전석 6만원
 문 의 | 극단 지우 664-8400



세대불문,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휴먼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초연된 후 책을 본 관객 뿐 아니라 연극을 본 관객이 책을 구매하는 역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스테디셀러극으로, 이번에 선포 KNN타워에 위치한 KNN시어터에서 장기상연에 들어간다. 노숙인이었던 주인공 독고가 올웨이즈 편의점 사장 연여사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이번 작품은 프로듀서 황기현, 연출 홍현우, 음악감독 김은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탄생한 웰메이드 뮤지컬마로, 감각적인 선율과 극의 정서를 반영한 가사로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전한다.

기타공연장

뮤지컬 나의 PS파트너

일 시 | 1월 3일(금)-3월 23일(일) 평일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휴관)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만 19세 이상 관람가, 예매시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역대 19금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 최단기간인 10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여 화제를 낳았던 동명의 영화를 무대화한 연극 '나의 PS파트너'.

기존 로맨틱 코미디극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설정으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이번 무대는 특히 원작의 큰 틀을 무대로 가져오되 극적 재미, 등장인물들 간의 감정선, 현실감 있는 연애담을 극 속에 더욱 밀도있게 그려내며 영화와는 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연극 크레이지 패밀리

일 시 | 1월 9일(목)-3월 9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30, 5: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만 19세이상 관람가, 예매시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대학로를 사로잡은 29금 코미디 '크레이지 패밀리'.

돈 많은 장인과 갑질갑부인에게 큰 소리 한 번 못내고 살던 왕성기 박사. 그런 처갓집 덕분에 핫한 인플루언서 의사가 됐지만 그에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은밀한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와이프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여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성기는 장인과 부인의 눈을 피해 취미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크레이지 패밀리'는 유쾌하고 도발적인 어른용 코미디극으로, 2011년 초연부터 독특한 소재로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캐릭터 뮤지컬 책 먹는 여우

일 시 | 2월 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전체 관람가)
 문 의 | 극단 가람 010-2284-4842



독일 작가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동명의 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책먹는 여우'.

책을 읽은 후 소금과 후추를 뿌려 책을 먹는 여우 아저씨. 가난한 탓에 전당포에 가구를 팔아가며 책을 사먹으나 그의 식탐은 더욱더 커지지만 한다. 도서관에서 쫓겨나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결국 책을 훔치기까지 하는데...

특히 이번 무대는 컴퓨터와 TV에 빠진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으로, 책과 무대가 주는 상상력과 즐거움을 어린이들에게 선사한다.

뮤지컬 사과가 쿵

일 시 | 2월 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가, 예매시 2만2천원)
 문 의 | 조이컬쳐 070-7807-0701



동화 속 세계가 무대로 튀어나오는 국내 최초 팝업 뮤지컬 '사과가 쿵'.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진 커다란 사과. 애벌레부터 코끼리까지 각양 각색의 동물들이 차례로 등장하여 열심히 사과를 갉아 먹는다. 각각의 동물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사과를 갉아먹고, 다음 동물들을 위해 슬쩍 자리를 피해 준다. 그러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당황한 동물들은 사과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는데...

이번 무대는 일본 작가 타다 히로시가 쓴 동명의 그림책이 원작으로, 동화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사과와 동물 친구들이 등장하여 시선을 사로잡고 '우적우적', '사각사각', '짹짹', '아삭아삭' 등 사과 먹는 소리로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가족뮤지컬 하늘을 나는 피터팬

일 시 | 2월 8일-9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 장 료 | 전석 6만6천원(24개월 이상 관람가, 예매시 3만6천9백원)
 문 의 | KM기획 010-4095-3005



동화의 나라 네버랜드에서 펼쳐지는 꿈과 환상의 모험 이야기 '하늘을 나는 피터팬'.

항상 바쁜 부모님의 꿈을 그리워하는 웬디와 마이클에게 어느 날, 네버랜드에 사는 피터팬과 요정 팀커벨이 찾아오고 그를 따라 네버랜드로 모험을 떠난다. 한편, 어린이를 끔찍이 싫어하는 후크 선장은 피터팬과 아이들을 네버랜드에서 쫓아내려 하는데, 과연 피터팬과 아이들은 후크선장과 해적들에게 맞서 이길 수 있을까?

특히 이번 무대는 오리지널 플라잉 기술을 도입,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피터팬의 화려한 등장과 함께 상상 속 네버랜드가 어린이들의 눈앞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일 시 | 2월 15일 토요일 오후 2:00, 6:00,
 16일 일요일 오후 2: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문 의 | (주)아이스타미디어컴퍼니 1644-4146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K-신파', '가족 신드롬'을 일으킨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이번 작품은 2009년 1월 초연 이후 지난 15년간 한 해도 쉬지 않고 중대형 극장에서 전국투어를 이어온 작품으로, 미국 공연을 포함하여 국내외 800회 이상 공연, 누적 관객 90만 명을 기록한 연극계 스테디셀러이다. 혼자 잘나서 잘사는 줄 알던 깽쟁이 딸 미영과 이 세상에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이 딸을 낳는 것이라는 친정 엄마 최여사가 시한부 미영의 죽음을 앞두고 2박 3일을 함께 보내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국민엄마 강부자와 친숙하고 선한 이미지의 딸 윤유선이 주연을 맡아 명품 연기로 가슴 앓듯한 모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일 시 | 2월 2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4천8백원(예매가, 전체 관람가)
문 의 | ㈜희망극단 070-7311-3149



인간이 되고 싶은 나무 인형 피노키오의 모험과 가족간의 사랑을 그린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홀로 지내던 제페트 할아버지는 나무인형을 만들어 피노키오라 이름 짓고 서로 가족이 된다. 피노키오는 자신의 몸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의 몸이 되기 위해 낯선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피노키오를 찾아 떠난 제페트 할아버지는 고래의 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배우들이 직접 부르는 라이브 공연과 신나는 안무, 화려한 의상과 다양한 무대 연출로 어린이들에게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라이브 가족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일 시 | 3월 1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2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가, 예매시 할인)
문 의 | ㈜조이컬처 070-7807-0701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명작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의 엄마는 자식들의 자람심을 키워주기 위해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집을 나가고 삼형제는 각자가 따로 집을 지어 살기로 한다. 첫째는 시원하고 바람도 잘 통하는 지푸라기 집을 짓고 둘째와 막내는 각각 튼나무와 벽돌을 이용하여 집을 짓는다. 이때 허기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나 삼형제를 찾아나서는데... 특히 이번 작품은 성실함과 유비무환의 교훈을 주었던 원작의 내용에 더해 함께 힘을 합쳐 늑대를 물리쳤던 삼형제의 우애를 코믹한 뮤지컬로 그려낸다.

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 사라진 한글을 찾아라!

일 시 |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23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VIP석(1층) 6만6천원, R석(2층) 4만4천원(24개월 이상 관람가, 예매시 40% 할인)
문 의 | 클립서비스 1577-3363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EBS 인기 프로그램 '한글용사 아이야'를 뮤지컬로 제작한 무대. 아이야에게 패배한 천지 앞에 미래에서 온 슝이와 꺼꾸리가 등장하며 미래에서 가져온 특수카메라로 훈민과 정음을 사진 속에 가둬버리는데... 과연 한글용사 아이야는 훈민과 정음을 구하고, 악당으로부터 한글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한글용사 아이야'는 한글을 읽고 쓰고 싶은 쌍둥이 자매 훈민과 정음이 한글용사 아이야의 도움을 받아 한글을 익히게 되는 이야기로, 화려한 퍼포먼스와 오감을 사로잡는 무대 효과로 관객의 재미를 더해준다.

해운대문화회관 On Screen Concert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일 시 | 2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교운홀
입 장 료 | 전석 5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새해 첫 날 가장 특별한 콘서트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영상으로 통해 만날 수 있는 해운대문화회관 On Screen Concert.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는 경이로운 연주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빈 필하모닉의 가장 대표적인 정규 음악회로, 매년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슈트라우스 일가의 음악과 함께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번 영상은 올해 1월 1일 열린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이탈리아의 명장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이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와 폴카를 들려준다.

가족매직쇼 스노우 컬러 버블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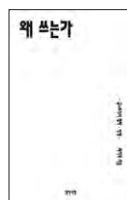
일 시 | 2월 22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가, 예매시 할인)
문 의 | 나눔 053-423-1219



화려한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가족매직쇼 '스노우 컬러 버블쇼'. 버블쇼라는 공연예술의 매력에 물들고 그 아름다움을 수많은 관객들과 함께 해온 버블아티스트 Bubble S가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형형색색으로 반짝이는 비눗방울들로 꾸며진 마법같은 순간들로 관객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추억을 새겨준다. 버블아티스트 Bubble S는 그동안 공연과 방송, CF, 콘서트, 강의 등 여러 방면의 활동에서 쌓아온 노하우로 '컬러 버블쇼'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 수많은 공연과 방송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교류해왔다.

2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3일(목) 오후 2:00, 27일(목) 오후 2:00, 5: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3일(월) 오후 7:00 부재의 '당산': 배호 노래로 엮는 시대의 데카당스
 • 강의/최재목(영남대 철학과 교수)
 10일(월) 오후 7:00 AI 영화, 진짜 영화 맞나요?
 • 강의/전병원(동덕여대 영화·트랜스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
 13일(목), 27일(목) 오후 2:00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17일(월) 오후 7:00 인간과 AI(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사이에서
 • 강의/류경모(한화시스템 드론사업총괄 부장)
 24(월) 오후 7:00 시네바움 스크리닝 '시네마 언노운: 보이지 않는 영화들-수영제과(2023, 95분)'
 • 출연/정성욱(감독), 김영광(진행, 영화평론가)
 27일(목) 오후 5:00 하이쿠 산책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연주회 해설감상회&작곡가 탄생지 다큐멘터리 기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다송 뮤직 스튜디오
입 장 료 10만원(2개월)
문 의 김옥균 010-6367-0149



MBC부산문화방송 'FM 가정 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 음악감상과 함께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 연주회 실황 등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클래식 입문자 환영.

프로그램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전막 감상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바로크음악 편 '비발디 만돌린협주곡', '헨델 오보에협주곡'

크로스오버 클래식 '한스 짐머 라이브 콘서트'
 앵글감상 '2025 빈필 신년음악회 실황'
 음악영화 '모차르트의 누이 난넬'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
 드보르작 '첼로협주곡', '슬라브 춤곡'
 차이콥스키 발레공연 실황 '백조의 호수'

2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전석 2만5천원
문 의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낭만·현대음악을, 금요일에는 '바그너 오페라' 특집을, 매주 토·일요일에는 직장인을 위

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사전 해설과 감상 후 참여자의 자유토론, 감상소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오페라/바그너 '리엔치'(7일~8일), 바그너 '탄호이저'(14일~15일), 바그너 '방황하는 네델란드인'(21일~22일), 바그너 '로엔그린'(28일)
 콘서트/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3일, 8일), 홀스트 '행성'(10일, 15일), 엘가 바이올린 협주곡(17일, 22일), 말러 교향곡 제5번(24일)

제198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일 시 2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문 의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010-63670-0149

- 출연/오정영 시인 외 회원 22명
- 초대시인/최진만, 정순영 시인
- 사회/김병래 전 KBS 아나운서
- 초청음악가/가수 정세정, 바리톤 김기범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일 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3개월 12만원, 1회 청강비 2만원 (현장강의 9회, 음악회 1회)
문 의 박진영 010-3642-6436(문자 문의)



뮤직가이드 박진영과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영상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수업 후에는 각 나라의 민요, 가곡, 뮤지컬,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세·음·여 중창단' 활동 또한 가능하다.

2월부터 석 달간 진행되는 2025년 1분기 강좌에서는 생상스, 비제, 라벨, 포레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음악세계를 살펴본다.

박진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로 있으며 현재 해운대문화회관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展 크리스토프 루크헤베를레

일 시 2024년 9월 14일(토)-3월 30일(일)
포디움 다이브 엠
입 장 료 일반 1만5천원(19세 미만 1만3천원)
문 의 ㈜크리스카홀딩스 752-2200

2024년 교류기획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일 시 2024년 10월 29일(화)-2월 16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문 의 부산박물관 610-7111

빈센트 발 : THE ART OF SHADOW

일 시 2024년 11월 1일(금)-3월 3일(일)
국립부산과학관 김진재홀
문 의 ㈜디커뮤니케이션 070-8693-9758

이토 준지 호러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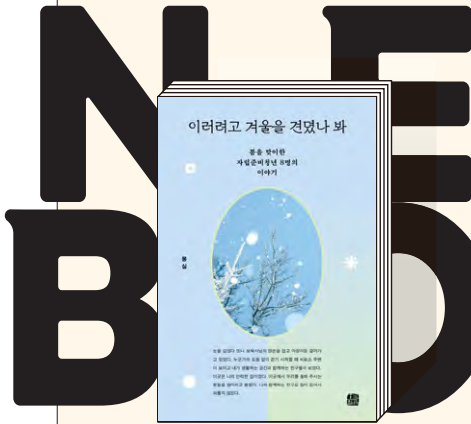
일 시 2024년 12월 14일(토)-6월 8일(일)
DUEX 부산
입 장 료 일반 2만5천원, 청소년 1만9천원 (만14세 이상 관람, 평일예매시 10%할인)
문 의 ㈜텍스앤덱스 02-2261-1393

박주호 개인전 Awareness

일 시 1월 10일(금)-3월 2일(일)
카린 갤러리
문 의 카린 갤러리 747-9305



'밥' 형상을 통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고 있는 박주호 작가의 개인전 'Awareness'으로, 초기작부터 현재 진행 중인 추상표현작까지 작가의 행보를 엿볼 수 있다.



이러려고 겨울을 견뎌나 봐

몽실 지음 / 호밀밭 / 1만 6,800원

이 책의 저자명인 '몽실'은 꿈 몽(夢), 열매 실(實)을 사용하여 '열매를 꿈꾸다'라는 뜻이다. 2020년 겨울, 부산의 한 보육 시설에서 퇴소한 8명의 청년이 모인 공동체이다. 태어나자마자 보육 시설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은 아들에게 학창 시절 내내 또래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 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 한다. 집다운 집,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지내본 적 없다가 밖으로 나갈 때라며 등을 떠밀린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의 처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체계에 순응했다. 8명의 청년은 명절이 되면 오갈 데 없는 서로를 위로하자며 모였고, 봉사 단체를 설립했다. 과거의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돕자는 취지였다. 이들은 꾸준히 후배들의 멘토로 활동한다. 2021년에는 시설 고등학생들과 결연한 '자립 멘토링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는 초·중학생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너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하여 보육 시설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아지트 같은 카페 '몽실커피'를 창업했다. 후배들에게 이정표는 될 수 없어도,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며 기꺼이 발 벗고 나선 아름다운 청년들의 이야기다.



새로 고침 새양미술사 (세트 편 3권)

이진숙 지음 / 돌베개 / 9만 9,000원

미술사의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예술의 역사를 써 내려간 101인의 창조적인 예술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작품, 시대적 과제, 창의적인 대응, 개인적인 삶의 궤적,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책. 이진숙 저자가 예술의전당 인문·감상 아카데미 정규 강좌 '미술사를 바꾼 101인의 예술가의 강연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지난 10년 동안 200명 이상의 대규모 강의실을 매학기 전석 조기 매진시킨 '예술의전당 아카데미'의 독보적인 인기 강좌의 풍부한 내용을 정리해 6년에 걸친 집필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이다. <1권-인간다움의 순간들: 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까지> <2권-위대한 고독의 순간들:라파엘전파부터 추상미술까지> <3권-치유와 연결의 순간들: 초현실주의부터 포스트모더니즘까지> <별책부록: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 미술관 탐방 가이드 101>로 구성됐다. 150×235mm 크기로 보통 단행본 책자보다 조금 크다. 총 1,534쪽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이다. 저자는 미술사를 사조와 양식의 나열로만 보지 않는다. 각 예술가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르네상스부터 현대 미술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흐름을 '시대와 인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한다.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

유홍준 잡문집 / 창비 / 2만 2,000원

500만 부 판매 신화를 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유홍준이 30여 년 만에 산문집을 냈다. 문화유산 전도사, 문화재청장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는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 작가의 자리를 내려놓은 적 없는 대한민국 대표 작가이기도 하다. 스스로 '잡문집'이라고 말하는 이 책은 유홍준의 산문 중 백미를 엄선해 엮었다. 길지 않은 글에서도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던진다. 간결하면서도 문학적이고, 자전적이면서도 시대적인 글에서 시대와 호흡하는 지성인의 고뇌와 서정을 느낄 수 있다. 금연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고별연'에서는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유머감과 인문정신이, 50년 지기 홍세화·김민기 등을 떠나보내며 쓴 추도사에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월을 뛰어넘은 우정이, 자신의 주례 선생인 리영희 선생에 대한 회고에서는 질곡 많은 현대사 속에서도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지식인들의 교류가 감명 깊게 펼쳐진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글쓰기 비법뿐만 아니라 삶에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누구보다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유홍준의 태도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꿈꾸는 예술학교'

2025년 프로그램 확정

부산지역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을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이 진행하는 예술교육공연 '꿈꾸는 예술학교' 2025년 프로그램이 확정되었다.

지난 2020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한 초등학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계기로 시작된 '꿈꾸는 예술학교'는 그동안 공연장, 학교 등에서 총 459회의 공연을 진행하며 10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올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등 5개 단체가 참여, 학교 수업시간과 연계하여 평일 오전 40여 회 진행된다.

우선 부산시립합창단의 '교실 밖 합창여행'은 교과서 수록곡, 오페라와 뮤지컬, 가요, 가극 등 다양한 곡들을 합창, 중창, 독창으로 들려주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재밋는 국악 신나는 국악'은 국악 실내악, 악기별 중주곡 등을 통해 신명넘치는 국악의 매력을 선사한다. 특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재밋는 국악 신나는 국악' 외에도 7월 2일 큰별샘 최태성과 함께 하는 '역사 속 우리음악 이야기'를 새롭게 선보인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재밋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은 클래식 명곡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하모니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꿈꾸는 예술학교'에서 특별제작하는 토코오페라는 올해 신작 '헨젤과 그레텔'을 준비하고 있다. 토코오페라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지역 성악가들이 참가하는 무대로, 화려한 영상과 유쾌한 스토리, 학생들의 분장 체험과 함께 부르는 오페라 아리아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7월 본 공연에 앞서 4월, 새로운 형식의 공연 '오페라 북콘서트'를 기획, 초·중·고등학생 등 전 연령대가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지난해 신데렐라를 새롭게 각색한 부산시립극단의 '신데렐라: 너의뜻대로'는 6월 다시 한번 더 무대에 오른다. 그외에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의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5월 2일 10:30),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우리 아이 음악회'(5월 9일 11:00), 2025년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으로 '바리데기(가제, 5월 23일 14:00)'도 예술교육공연을 통해 청소년 관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꿈꾸는 예술학교' 전체 프로그램은 전화, 또는 메일(art.dream@bscc.or.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051-607-3110, 3114)

부산시립교향악단 최영화(비올라) 단원 제50회 부산음악상 수상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최영화가 제50회 부산음악상(연주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 1975년 제정된 부산음악상은 부산 음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국내외에 한국의 자긍심을 심어준

음악가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부산음악협회가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비올리스트 최영화는 1993년 2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입단한 후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와 우수한 기량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활동에 참여해왔으며, 2008년에는 여성 연주자들로 구성된 레디스필 앙상블을 창단하고 2016년에는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인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맡는 등 그동안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에 힘써왔다.



2025년도 [재]부산문화회관 배움터 대관 안내

대상

- ▶ 부산문화회관 배움터: 컨퍼런스홀, 강의실, 세미나실, 배움실

대관내용

- ▶ 대관기간: 2025년 2월 17일(월)~3월 31일(월)
- ▶ 대관 가능일: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대관 서비스 공지사항 참고

접수기간

2025년 2월 22일(수)~ 3월 7일(금)

- ▶ 접수방법: 홈페이지 → 대관서비스 → 서식 다운로드 → 작성 후 → 이메일(bch1@bscc.or.kr) 접수
 - ※ 신청서 다운로드 ① 별지 제8호 서식 배움터 대관신청서
② 별지 서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결과회신: 2025년 2월 둘째주(예정)

대관내용

- ▶ 운영시간 : 월요일~토요일(09:00~20:00)

구분	오전 (09:00~12:00)	오후 (13:00~16:00)	저녁 (17:00~20:00)
컨퍼런스홀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강의실	30,000원	30,000원	30,000원
세미나실	15,000원	15,000원	15,000원
배움실(1~3)	9,000원	9,000원	9,000원
배움실(4~7)	15,000원	15,000원	15,000원

※ 1회는 1일 오전(09:00~12:00), 오후(13:00~16:00), 저녁(17:00~20:00) 총 3회 중 하나를 말함.

※ 상기 대관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 배움터 사용 승인 후 7일 이내 사용료 납부

대관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 ▶ 대관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후, 전자우편(bch1@bscc.or.kr)으로 신청
-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 첨부

대관심의 우선기준

- ▶ 순수 문화·예술교육 및 행사
- ▶ 시 주최 및 후원 행사 등(공익적 행사)
- ▶ 특정 종교 포교 또는 정치적, 유사판매 행위 등 행사는 대관 제외
- ▶ 공간 사용이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관 제외

대관공고 일정

- ▶ 정기대관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 ▶ 상시대관 : 정기대관 후 수시접수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133

2025년 상반기 시립예술단과 함께 하는

나는 예술가다

아카데미 강좌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2025. 2. 10.(월) ~ 정월 마감 시

온라인 접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 아카데미 → 수강신청

오프라인 접수·문의: 051-607-6000



연번	분야	강의명	기간	일시	회차	장소	수강료
1	국악 'Feel the Vibe: 전통을 담다'	사물놀이 A	3. 10. ~ 6. 23.	월, 16:30~18:00	15	(중극장) 연습실	240,000원
2		사물놀이 B	3. 10. ~ 6. 23.	월, 18:30~20:00	15	(중극장) 연습실	240,000원
3		피리 A	3. 10. ~ 6. 23.	월, 17:00~18:30	15	강의실3	240,000원
4		피리 B	3. 10. ~ 6. 23.	월, 19:00~20:30	15	강의실3	240,000원
5		해금 A	3. 10. ~ 6. 23.	월, 17:00~18:30	15	연습실	240,000원
6		해금 B	3. 10. ~ 6. 23.	월, 19:00~20:30	15	연습실	240,000원
7		거문고 A	3. 11. ~ 6. 24.	화, 17:00~18:30	15	강의실3	240,000원
8		거문고 B	3. 11. ~ 6. 24.	화, 19:00~20:30	15	강의실3	240,000원
9		대금 A	3. 12. ~ 6. 18.	수, 17:00~18:30	15	강의실3	240,000원
10		대금 B	3. 12. ~ 6. 18.	수, 19:00~20:30	15	강의실3	240,000원
11		가야금 A	3. 13. ~ 6. 19.	목, 17:00~18:30	15	강의실3	240,000원
12		가야금 B	3. 13. ~ 6. 19.	목, 19:00~20:30	15	강의실3	240,000원
13	무용 '움트다(UMT_DA) 프로젝트'	일반(초급)	3. 11. ~ 6. 24.	화, 19:30~21:00	15	연습실	240,000원
14		일반(중급)	3. 12. ~ 6. 18.	수, 19:30~21:00	15	연습실	240,000원
15		무용(전문가반)	3. 13. ~ 6. 19.	목, 19:30~21:00	15	연습실	240,000원
16	합창	'우리의 하모니'	4. 12 ~ 7. 12.	토, 10:00~12:00	12	연습실	120,000원

※ 국악 'Feel the Vibe: 전통을 담다'는 연간 프로젝트로 연말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 무용 '움트다(UMT_DA) 프로젝트'는 상반기 아카데미 결과물로 쇼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합창 '우리의 하모니'는 연간 프로젝트로 운영되며 수강 가능 연령은 초3~중2학년으로 청소년 합창제 연합합창과 12월 부산시향 말러 교향곡 공연에 참여합니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5 상반기 공연프로그램(1월~6월)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5. 1-6월

January - Jun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2025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챔버홀 2025. 1. 4.(토) 5:00pm,
1. 8.(수), 1. 10.(금), 1. 14.(화), 1. 17.(금) 7:30pm
• 예술감독 | 김동욱 ※ 7세 이상 관람



2024-25 린 전국투어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5. 1. 4.(토) 1:00pm, 6:00pm
R석 143,000원 S석 132,000원



2025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문화 | 대극장 2025. 1. 11.(토) 5:00pm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110,000원 A석 90,000원
• 지휘 | 요하네스 빌드너 • 협연 | 소프라노 조수미
• 연주 |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부산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시리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문화 | 중극장
전석 20,000원
#1. 2025. 1. 23.(목) 7:30pm - 1. 24.(금) 11:00am | with 박진우
#2. 2025. 3. 25.(화) 7:30pm - 3. 26.(수) 11:00am | with 조인혁
#3. 2025. 7. 24.(목) 7:30pm - 7. 25.(금) 11:00am | with 조성현
#4. 2025. 8. 28.(목) 7:30pm - 8. 29.(금) 11:00am | with 브랜든 최
#5. 2025. 10. 30.(목) 7:30pm - 10. 31.(금) 11:00am | with 황세희
• 지휘, 해설 | 홍석원, 백승현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부산 클래식의 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문화 | 대극장
R석 30,000원 S석 20,000원
2025. 2. 20.(목) 7:30pm #1.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2번
• 지휘 | 장윤성 • 피아노 |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2025. 4. 4.(금) 7:30pm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1번
• 지휘 | 지중배 • 바이올린 | 김다미
2025. 5. 29.(목) 7:30pm #3.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4번
• 지휘 | 홍성택 • 피아노 | 노윤화
2025. 7. 25.(금) 7:30pm #4.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3번
• 지휘 | 윤상운 • 비올라 | 김남중 • 클라리넷 | 백동훈
※ 7세 이상 관람



압도적 박력으로 넘나드는 장르의 경계, 록 그너머의 록 잠비나이 콘서트 with 미역수염

문화 | 중극장 2025. 3. 15.(토) 5:00pm
전석 40,000원
• 출연 | 잠비나이
• 서포트 액트 | 미역수염
※ 7세 이상 관람



두 남녀의 만남과 사랑을 그린 연극 <랑데뷰>

문화 | 중극장 2025. 4. 4.(금) 7:30pm, 4. 5.(토) 3: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작·연출 | Yossef K 김정환
※ 7세 이상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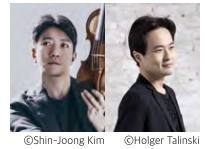
독일 고전주의 전통의 정수 크리스티안 테슬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5. 5. 2.(금) 7:3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서로 다른 음악적 깊이가 만나 빛어내는 우정의 선율 김영옥&김다솔 듀오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5. 5. 3.(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바이올린 | 김영옥
• 피아노 | 김다솔
※ 7세 이상 관람



완벽한 균형으로 선사하는 절묘한 음악적 해석의 극치 에스메 콰르텟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5. 6. 5.(목)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연주 | 에스메 콰르텟
※ 7세 이상 관람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춤 국립현대무용단 <암! 암! 암!>

문화 | 중극장 2025. 6. 14.(토)-6. 15.(일) 2:00pm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안무 | 박영록, 인정주
※ 48개월 이상 관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시민 | 대극장 2025. 1. 17.(금) 7:30pm

VIP석 50,000원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지휘 | 이동훈 • 사회 | 정희정
- 출연 | 하윤주, 이대하, 이희문과 농농, 정태춘, 궁궁, 트레블러크루
- 연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7세 이상 관람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천상의 화음'

2025 빈 소년합창단

시민 | 대극장 2025. 1. 23.(목) 7:30pm

VIP석 88,000원 R석 66,000원 S석 44,000원

A석 22,000원

- 지휘 | Oliver Stech

※ 7세 이상 관람



황치열 The Special

시민 | 대극장 2025. 2. 15.(토) 5:00pm

VIP 99,000원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55,000원

※ 7세 이상 관람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살롱 드 바이올린 I <대니 구>

시민 | 소극장 2025. 2. 21.(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잊고 있던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특별한 작품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시민 | 전시실 2025. 3. 7.(금) 2:00pm, 7:30pm

8.(토) 2:00pm, 5:00pm

전석 30,000원

- 프로듀서 | 석재원 • 연출 | 오경택
- 출연 | 김아영, 정세별
- 제작 |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영

※ 13세 이상 관람



LG아트센터 제작 / 사이먼 스톤 연출

연극 <벚꽃동산>

시민 | 대극장 2025. 3. 13.(목)-14(금) 7:30pm

3. 15.(토) 3:00pm

VIP석 11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13세 이상 관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키즈송 워드 클래식>

시민 | 소극장 2025. 3. 15.(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도심 속 문화 쉼터

2025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광장 2025. 4. 25.(금), 5. 2.(금), 5. 9.(금)

5. 16.(금) 12:10pm

무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클래식 댄스! 댄스!>

시민 | 소극장 2025. 5. 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5. 5. 17.(토) 5:00pm

VIP석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7세 이상 관람



캐나다 대표 오케스트라와

대한민국 간판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만들어내는 울림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시민 | 대극장 2025. 5. 29.(목) 7:30pm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90,000원

A석 50,000원

※ 7세 이상 관람



뮤지컬 '파가니니'의 주인공, '지붕 위의 바이올린' '모비딕' '페임' 주역

살롱 드 바이올린 II <KoN(콘)>

시민 | 소극장 2025. 6. 20.(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2025년 제5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초청작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

시민 | 소극장 2025. 6. 27.(금) 8:00pm

6. 28.(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출연 | 강애심, 장은정, 최지연, 김혜숙, 조민수

※ 36개월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1. 9.(목) 7:30pm
• 지휘 | 홍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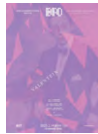
제616회 정기연주회 RHAPSODY & CAPRICCIO

문화 | 대극장 2025. 1. 10.(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이진상



제617회 정기연주회 VALENTEIN

문화 | 대극장 2025. 2. 14.(금) 7:30pm
• 지휘 | 백승현
• 바이올린 | 박은중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 1

문화 | 중극장 2025. 2. 21.(금) 7:30pm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3. 5.(수) 7:30pm
• 지휘 | 홍석원



©황필주

제618회 정기연주회 (ENT)SPANNUNG

문화 | 중극장 2025. 3. 6.(목)-3. 7.(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최송하, 유다윤



©SylvainBarrès

제619회 정기연주회 PARADISO

문화 | 대극장 2025. 4. 11.(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소프라노 | 박미자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 2

문화 | 챔버홀 2025. 4. 30.(화) 7:30pm



제620회 정기연주회 NEW WORLD

부산콘서트홀 2025. 5. 23.(금) 7:30pm
• 지휘 | 홍석원



©황필주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6. 18.(수) 7:30pm
• 지휘 | 홍석원



제621회 정기연주회 DSCH

문화 | 대극장 2025. 6. 19.(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첼로 | 최하영



©andrej-gric

부산시립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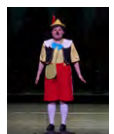
제195회 정기연주회 벤자민 브리튼 <봄의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5. 3. 13.(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협연 | 최정원, 이아경, 김효종, 김대영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합창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196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문화 | 대극장 2025. 5. 3.(토) 11:00am, 3:00pm,
5. 4.(일) 5:00pm
• 지휘 | 이기선, 임희준
• 연주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310밴드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전쟁과 평화 그리고 희망>

문화 | 중극장 2025. 6. 20.(금) 7:30pm
• 지휘 | 성상철



제197회 정기연주회
2025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5. 7. 2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제192회 정기공연
해외 안무가 프로젝트(가제)

문화 | 대극장 2025. 11. 7.(금) 7:30pm, 11. 8.(토) 3:00pm
• 연출 | 이정윤



제198회 정기연주회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 <Song of Arirang>

문화 | 대극장 2025. 9. 1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특별공연
홀로홀출

문화 | 중극장 2025. 12. 5.(금) 7:30pm, 12. 6.(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윤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6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28.(화)-10. 30.(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임희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9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 <부산, 바다>

문화 | 대극장 2025. 3. 27.(목) 7:30pm
• 지휘 | 이동훈



제199회 정기연주회
세계의 합창음악 여행

문화 | 중극장 2025. 11. 18.(화) 7:30pm
• 지휘 | 임희준



특별연주회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문화 | 중극장 2025. 4. 23.(수) 11:00am
• 지휘 | 이동훈



제200회 정기연주회
현대 오라토리오 2 <이 시대의 한 아이>

문화 | 대극장 2025. 12. 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제230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
부산국악작곡가협회와 함께하는
<초연의 밤>**

문화 | 대극장 2025. 6. 24.(화) 7:30pm
• 지휘 | 이동훈



부산시립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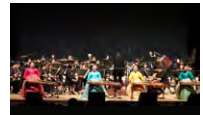
제191회 정기공연
남풍

문화 | 대극장 2025. 5. 9.(금) 7:30pm,
5. 10.(토) 3:00pm
• 연출 | 이정윤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5. 7. 22.(화)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5. 7. 11.(금) 7:30pm, 7. 12.(토) 3:00pm
• 연출 | 이정윤



부산시립극단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_창작초연 <오롯이 빛나는>
시민 | 소극장 2025. 3. 28.(금) 7:30pm, 3. 29.(토) 5:00pm
 • 작 | 차승호
 • 객원연출 | 미정

스타프로젝트
 창작초연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_창작초연 <초월자>
시민 | 소극장 2025. 4. 4.(금) 7:30pm, 4. 5.(토) 5:00pm
 • 작 | 김민우
 • 객원연출 | 미정

스타프로젝트
 창작초연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문화 | 사랑채극장 2025. 6. 6.(금)-7. 6.(일)
 주말·공휴일 11:00am, 2:00pm
 • 작 | 김영화 • 작곡 | 이영재
 • 연출 |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6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5. 4. 1.(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2025 솔로리스트들의축제
문화 | 대극장 2025. 5. 13.(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5. 6. 14.(토) 5:00pm



제77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5. 9. 16.(화)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문화 | 중극장 2025. 3. 29.(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6회 정기연주회
엄마 같이 걸어요
문화 | 대극장 2025. 5. 31.(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7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노래 Song of Peace
문화 | 대극장 2025. 9.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특별연주회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31.(금)-11. 1.(토) 5:00pm
 • 출연 |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합창단 및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문화 | 대극장 2025. 12.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부산문화회관 주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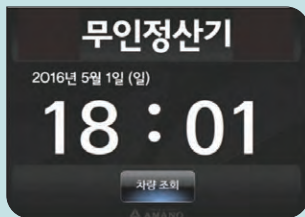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을 찾으시는 고객님의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
기존 주차요금제가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설치된 사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출구에서 기다림 없이 빠른 출차가 가능합니다.

P 주차요금 안내

주차시간	요금	할인 대상	50%
입차 후 4시간 이내	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회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친환경, 다자녀, 요일제 다회(2회 이상) 수강등록한 아카데미 수강생 	
4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최대	4,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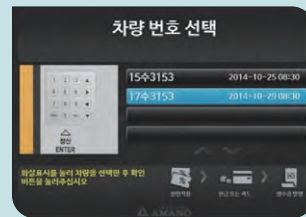
P 무인정산기 등록안내



Step 1 차량조회 선택



Step 2 차량번호 입력



Step 3 차량선택



Step 4 바코드 할인 후 결제
(바코드 할인 인식 후 폐기)

정기회원 주차 안내

- **무료주차권 사용** 기존의 정기회원 주차쿠폰은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편을 통해 새로운 바코드주차권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주차권을 수령하지 못한 회원들은 고객센터(607-6000)로 연락바랍니다.
- **주차요금 할인** 기존 정기회원카드 제시가 아닌 사전 등록 차량에 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하며, 정기회원 기간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등록 방법** E-메일(cus@bscc.or.kr),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 차량번호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 607-6000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MEMBERSHIP GUIDE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공연 관람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수(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
- *차량번호 등록 시 할인 적용(1대에 한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무료 및 일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 (20%), 50명 이상 (30%)

VIP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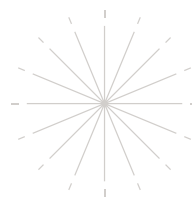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5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연극 <이단자들> 종료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 7:30, 10월 2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종료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제아음악회 종료

2024년 12월 31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5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종료

2025년 1월 4일(토) 오후 5:00, 8일(수),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14일(화), 1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회차별 20매)

2025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종료

2025년 1월 1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종료

2025년 1월 1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종료**
3월 25일(화) 오후 7:30, 26일(수) 오전 11:00
7월 24일(목) 오후 7:30, 25일(금) 오전 11:00
8월 28일(목) 오후 7:30, 29일(금) 오전 11:00
10월 30일(목) 오후 7:30, 31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2025 빈 소년 합창단 **종료**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1.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

2025년 2월 20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2025년 3월 7일(금) 오후 2:00, 7:30
8일(토)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전시실(회차별 10매)

잠비나이x미역수염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5월 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연극 <랑데부> **종료**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종료**

2025년 5월 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30매)

김영욱&김다솔 듀오 콘서트 **종료**

2025년 5월 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3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3.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얼음 **종료**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3 <얹! 얹! 얹!>

2025년 6월 14일(토)-6월 15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에스메 콰르텟 리사이틀 **종료**

2025년 6월 5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살롱 드 바이올린 KoN(콘) 토크 콘서트

2025년 6월 20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관객참여형 감성치유 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바버레타에 살고 있군요>

2025년 6월 27일(금) 오후 8:00, 2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25년 7월 2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은누리약국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 정영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손내과의원 원장
- 손혜경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에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 정명선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 정민섭 (전)국회의장
-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조성락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 조종래 하정태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국립극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감독 김성진
작곡 및 음악감독 함현상
연출 정종임
극본 이가현
지휘 이승현



엔통이의 동요나라2

2025. 1. 14(화) ~ 25(토), 2. 11(화) ~ 22(토)
평일 10:30, 주말 11: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 ★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홍보 마케팅팀(607-6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60



· 참여기간 : 2025. 1. 24.(금)~2. 19.(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5. 2. 25.(화)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기프트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5년 1월호 낱말퍼즐 정답 및 당첨자

당첨자

010-****-4506

010-****-5866

010-****-3027

010-****-6702

010-****-5789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재)부산문화회관



@배시시TV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공간 소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지하 242
(지하철 2호선 대연역사내)
051)611-851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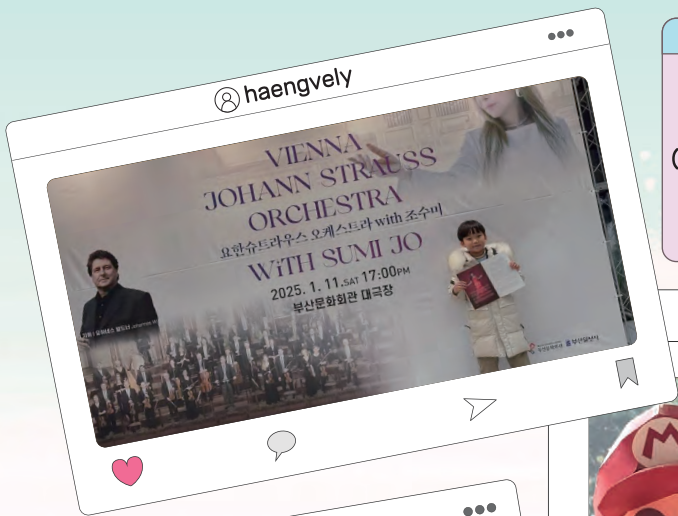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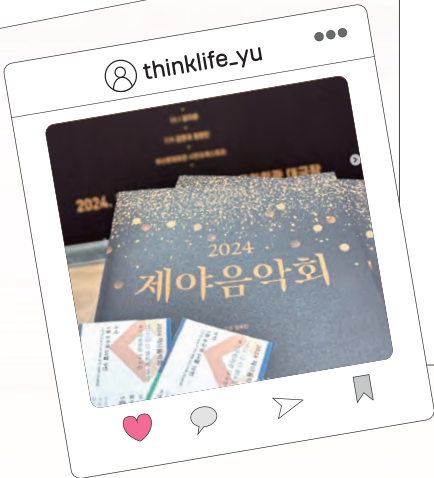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2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 ○ ○
#부산문화회관.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3월호



@life_is_beautiful1006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공간 소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 여행사 판매가의 5%를
-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



사롱디
바이올린

2025. 2. 21.(금) 19:30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가격 R석 44,000원 S석 33,000원

관람연령 7세이상관람

장소 부산시민회관소극장

문의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 (ARS 1번)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interpark 티켓 1544-1555

2025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홍석원



BPO SYMPHONIC SEASON 2025
Seokwon Hong, artistic director

VALENTINE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Brahms / Violin Concerto

포레 /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Faure / Pelleas et Melisande Suite

스트라빈스키 / 불새 모음곡(1919)
Stravinsky / L'oiseux de feu suite (1919)

*

지휘 백승현 / 바이올린 박은중

617

2025.2.14 (금)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ww.bscc.or.kr

Chamber Series I Great Heritage

실내악시리즈 I
위대한 유산

슈베르트 | 현악 3중주, D.471
F. Schubert | String Trio in B-Flat Major, D.471
Vn. 신호은 Va. 권덕진 Vc. 이금빈

라벨 | 현악 4중주, M.35
M. Ravel | String Quartet in F Major, M.35
Vn. I 임정은 Vn. II 이현재 Va. 윤솔샘 Vc. 최지현

차이콥스키 | 현악 6중주, Op.70 '플로렌스의 추억'
P. I. Tchaikovsky | String Sextet in d minor, Op.70
'Souvenir de Florence'
Vn. I 임홍균 Vn. II 신호은
Va. I 황여진 Va. II 권덕진
Vc. I 이일세 Vc. II 이금빈

2025.2.21. Fri.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황치열 The Special

Hwang Chi Yeul



Guest 미교



2025. 2. 15.(토) 17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 VIP석 9만 9천원 / R석 8만 8천원 / S석 7만 7천원 / A석 5만 5천원 입장연령 | 7세 이상
문의 |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ARS 1번)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interpark 티켓 1544-1555